

5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94.28	↓ 코스닥	813.38
	(-20.67)		(-15.14)
↓ 금리 (미국 9년)	3.484	↑ 환율 (원·달러)	1311.20
	(-0.047)		(+7.20)

고금리 정기예금 만기 임박 은행권 금리경쟁 불 붙었다

5대은행 정기예금 잔액 12.7조 ↑
작년 高利예금 만기로 재가입 늘어

내년 대출확대 위해 예금확보 필요
수협 4.35% 등 4대 속속 선보여

지난해 말 최대 연 5~6%대 고금리로 가입한 정기예금 만기가 다가오자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내년 아파트담보대출 등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대출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대출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예금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868조 7369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12조 762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3조 6835억원에 이어 두 달 간 26조 4462억원이 늘었다.

예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지난해 말 고금리로 가입한 은행 예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예금에 재가입하는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은행채와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은행들은 연 5%, 저축은행은 연 6%대의 예금상품을 내놔다. 이로 인해 예

금은행의 총 예금 잔액은 지난해 1월 781조 8888억원에서 지난해 12월 989조 1313억원으로 26.5% 늘었다. 만기시기, 시장불안으로 주식투자 등이 어려워진 만큼 또다시 재가입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저축은행이 예금금리를 올리지 않은 점도 은행 예금잔액을 키웠다. 지난해 저축은행은 늘어나는 대출 만큼 예금잔액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렸다. 올해 들어 대출비중 확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추면서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총 예금잔액은 지난해 1월 103조 1144억원에서 12월 119조 7108억원으로 16% 증가한 뒤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9월 예금잔액은 116조 5901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6% 줄었다.

이에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예금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내년 아파트담보대출 등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대출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대출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예대율에 따라 예금을 확보해야 한다. 예대율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잔액 대비 대출 규모로, 예대율이 100%를 넘어서면 건

전성 악화 우려가 커진다.

이날 5대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95~4.00%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같은 5%금리는 아니지만, 4%대에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현재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이다. 최고우대금리는 4.35%로 기본금리 3.30%에 첫 거래, 활동계좌와 보유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제주은행의 ‘J정기예금’은 기본금리 2.10%에 비하면 가입, 홈페이지 로그인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최고금리는 4.25%다. 부산은행의 ‘더(T)he’ 특판 정기예금’은 기본금리 3.75%에 우대금리를 더해 4.15%의 최고금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과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은 우대금리 없이 기본금리로 4.00%의 금리를 제공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당분간 4%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지난해보다는 낮지만 은행에서 4%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당분간 예금 가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尹, 현대차에 ‘300억불 수출의 탑’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에게 3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뉴시스

尹 “수출 진흥이 곧 민생 걸림돌 규제 과감히 혁파”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해외 마케팅 지원 대폭 확대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신설 등
우리기업 운동장 넓혀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다. 기업인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우리기업의 수출 활력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을 비롯해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출은 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좋은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경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복합위기에 글로벌 안보 위기를 더해져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취임 이후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1년 7개월 동안 우리 기업인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며 90여 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나 우리 수출과 세일즈를 위해 외교활동을 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달, 1년여 만에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고,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가며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출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자동차는 친환경차, 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 중심으로 올해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전은 지난해 이집트 엘다바에 이어 올해 루마니아 원전설비 건설사업을 수주했고, K-방산도 수출 주력부대의 일원으로 가세했다”며 “1963년에 처음 출시된 라면은 60년 만에 1조원 수출의 벽을 넘어섰다. 대한민국은 K-푸드뿐 아니라 스마트 농장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우리 경제에 활력이 돌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제가 우리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전 세계에 계속 넓혀나갈 것”이라며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8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는 수출을 위한 큰 자산이다. 앞으로 영국, 인도, 중동 국가 등과 FTA를 통해 수출의 길을, 여러분의 운동장을 계속 넓히고 키워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 전시회, 수출 지원 바우처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 중소기업이 자금 걱정 없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6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3분기 성장률 0.6%… 올해 1.4% 가능성

반도체 업황 개선, 수출·생산 ↑
실질 국민총소득도 1.6% 늘어

올해 3분기(7~9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4% 증가한 수준이다. 전 분기에 감소했던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1.6%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가계·기업·정부가 일정기간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기 대비 1.4% 증가했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감소했지만 컴퓨터·전자 및 광



학기기가 증가한 영향이다.

건설업도 전분기 대비 2.3%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이 줄었지만, 항공운송 등 운수업과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이 늘며 0.3% 증가했다.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부소비가 건강보험급여비 등 사회보장현물수혜

를 중심으로 0.2% 늘고, 민간소비가 음식·숙박·오락문화 등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0.3% 증가했다. 정부소비와 민간소비는 모두 전 분기 -2.1%, -0.1% 감소한 뒤 증가세로 전환했다.

건설투자도 비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건설이 1.2% 늘고 도로 등이 증가하며 토목건설이 4.8% 증가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장비(-4.7%)가 줄며 2.2% 감소했다.

3분기 수출은 반도체·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3.4% 늘고, 수입도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3% 증가했다.

최정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수출과 생산이 2분기 연속 증가했다”며 “재고수준 또한 9월 이후 하락하고 있어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 /사진 뉴시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요구에 “통합과 단결” 강조

▲ 文 전 대통령, 영화 ‘서울의 봄’ 관람 후 “분노가 불의한 현실 바꾸길” 소감
▲ 정부, 필리핀서 일어난 민간인 공격 ‘미사 폭탄테러’ 규탄 메시지



▲ 한덕수 국무총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기부 /사진 뉴시스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개정 신중론 밝혀

금소법 시행에도 또 불완전판매?... 금융당국 책임론 부상

금감원, 불완전판매 배상안 마련중
5대 은행서 H지수 ELS 8.4조 판매
지수 현수준 머물면 '3조 손실' 예상
투자자들 '불완전판매' 의혹 제기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불완전판매 논란 당시 제도보완에 나섰지만 같은 일이 또 다시 벌어졌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배상 비율 기준안을 마련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이 대표 민원 사례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면 금융사들은 이를 근거로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내년 초 ELS 상품의 손실이 본격화할 경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신속하게 분쟁조정에 착수하려는 금감원의 취지다.

홍콩H지수 연계 ELS상품은 은행권을 통해 많이 판매됐다.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ELS 중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잔액은 8조4000억원이다. 홍콩H지수가 현 수준에 머물 경우 3조원이 넘는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

ELS는 리스크가 높은 장외 파생상품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 발생 기준선을 밑돌면 만기 시점에 원금 손실(녹인)이 발생한다.

현재 H지수 상황으로 보면 '녹인형' 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내년 상반기 홍콩H지수가 2021년 상반기의 70%(1만200포인트)수준은 되어야 한다. 지수가 반등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노녹인형'의 경우도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통상 65% 이상이면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현재 지수 수준으로는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은 은행 등 판매사들이 ELS를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 처럼 안내했다며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역시 가장 눈여겨보는 대목이 불완전판매 여부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H지수 사태에 대해 은행권의 책임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로 투자자들이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당시에도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고, 불완전판매 보상이 진행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DLF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상품판매에 대한 관리·점검을 벌였고,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

단하겠다고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DLF사태는 고위험 사모펀드였기 때문에 고위험 공모펀드 판매에 대해서는 관리·점검 등이 꼼꼼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소법 시행 후 은행 창구에서 거래 시간이 크게 늘어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적합성 평가의 간소화를 일정 수준 허용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일처리를 빨리한다고 보이겠지만 만기가 돌아오기도 전 은행권을 향해 면피발언과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당시 모든 고위험 상품들을 전수조사하고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사모펀드만 집중 관리한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다"며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잘못했으니 책임져라'는 태도는 금융당국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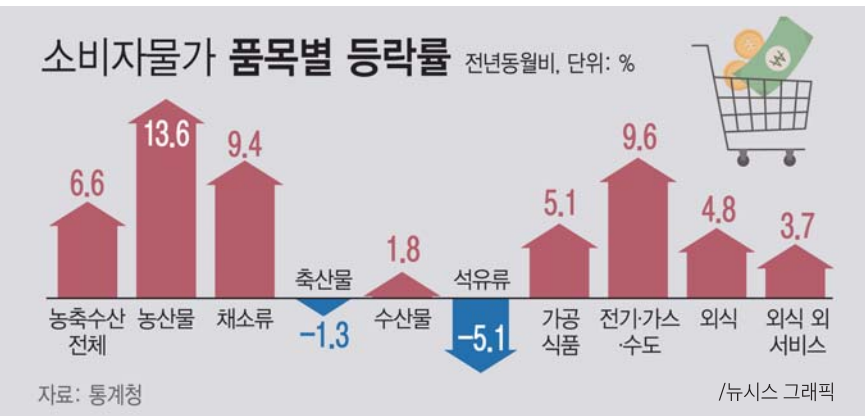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4개월째 3%대 상승... 농산물값 '폭등'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상품 물가 3.8%, 서비스 3.0%올라
농산물값 2년6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3.3% 오르며 4개월째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농산물값이 2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오르는 속도는 8, 9, 10월에 비해 꺾였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올해 8월(3.4%)과 9월(3.7%), 10월(3.8%)에 이어 4달 연속으로 3%대를 나타냈다. 6월과 7월에 각각 2.7%, 2.3%로 다소 안정화한 뒤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4월(3.7%), 5월(3.3%)에도 3% 선을 넘긴 바 있다.

품목별로, 상품과 서비스 물가가 1년 전보다 각각 3.8%, 3.0% 올랐다. 상품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이 6.6% 상



승했다. 채소류(9.4%)와 과실(24.1%), 곡물(7.7%) 등이 오르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률이 무려 13.6%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14.9%) 이후 30개월 사이 최대 상승폭이다. 사과(55.5%)를 비롯해 오이(39.9%), 파(39.3%), 토마토(31.6%), 굴(16.7%), 쌀(10.6%) 등이 크게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채소

는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상여건이 좋아지면 많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과실 같은 경우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가격이 하락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도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낮아지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채소류는 생육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새로 출하가 시작되면서 떨어질 것"이라며 "과

일은 1년에 한 번 나오면서 작황 부진 영향이 조금 더 가겠지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축산물 가격은 1.3% 내렸다. 국산 쇠고기(-3.6%), 돼지고기(-2.4%) 등이 가격도 하락했다. 수산물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1.8% 올랐다.

공업제품은 2.4% 상승했다. 우유(15.9%), 아이스크림(15.6%), 빵(4.9%) 등이 많이 올라 가공식품은 5.1% 상승했다. 소주와 맥주, 냉동식품 등의 가격이 올라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휘발유값(2.4%)은 올랐으나 경유(-13.1%), 등유(-10.4%), 자동차용 LPG(-5.8%) 등이 하락하면서 석유류 물가는 5.1% 내려갔다.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25%포인트(p) 끌어내렸다. 전기료(14.0%)와 도시가스(5.6%), 상수도료(4.6%) 등 전기·가스·수도는 9.6% 상승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차기 손보협회장에 이병래 단독 추천

손해보험협회 차기 회장으로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사진)이 내정됐다. 손해보험협회 회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55대 협회장으로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을 총회에 단독 후보로 추천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오는 20일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내정자는 대전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2회로 관가에 입문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대변인, 금융서비스국장에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을 지냈다. /김주형 기자 gh471@



추경호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가시화"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제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 여전
특별물가안정체계 계속 운영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우리 경제에 회복 흐름이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추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11월 수출은 품목·지역별로 고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월별 변동성은 있지만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 "대내외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만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회복의 온기가 경제전 부문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인 물가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3% 상승하면서 전월(3.8%)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다.

추부총리는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지난 8월 초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주요 농산물 가격도 수급 여건이 개선돼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근원물가 상승

률(3.0%)을 언급하며 "미국과 유럽의 근원물가가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아직 4~5%대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훨씬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추부총리는 "국제유가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며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도 발표했다. 추부총리는 "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핵심교통망 구축시기를 1년 앞당길 것"고 밝혔다.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신속 협의의 또는 직권 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가능한 갈등 관리체계를 도입해 교통사업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광역교통사업은 재정사업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적용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생명보험협회장에 '만장일치' 김철주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제36대 생명보험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생명보험협회가 5일 생명보험업계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제36대 회장으로 김철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9일부터 2026년 12월 8일까지 3년 동안 생명보험협회를 이끌게 된다.

김 회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조지아주립대 대학원 재정학 석사를 마쳤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김주형 기자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연되나 조현식·조희원, 공개 주식매수 나서

(장남)

(차녀)

Hankook & Company

벤처라, 주식 27.32% 취득 방침
조현식·조희원 특수관계자 명시
조 회장 측 “내년 주주총회 준비”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



조현식
한국엔컴퍼니그룹 고문

한국엔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가 또다시 경영권 분쟁을 시작했다. 조현범 회장 체제가 확립된 지 2년여만이다. 조 회장의 형 조현식 고문과 누나 조희원 씨가 손을 잡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까지 끌어들이 지분 확보에 나섰다.

매수 조건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에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경영권이 아닌 조현범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 조현식 고문 2년만에 반격

5일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회사 벤투라는 오는 24일까지 한국엔컴퍼니 주식을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벤처라는 한국엔컴퍼니 주식을 최대 27.32%까지 취득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엔컴퍼니 경영권을 확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공개매수 이유를 밝혔다.

벤처라는 2021년 설립해 지난 11월 27일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했다.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사내이사를 맡고 있고, 조현식 고문과 조희원 씨를 특수관계자로 명시했다. 조현식 고문과 조희원 씨는 조현범 회장과 형제지간이다. 2년전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하고

물러났던 조현식 고문이 다시 ‘형제의 난’을 시작한 셈. 지분 0.81%를 보유한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없었다.

조현식 고문과 조희원 씨는 한국엔컴퍼니 지분을 29.54% 보유하고 있다. 각각 18.93%, 10.61%이다. 벤투라가 목표대로 지분을 확보하면 최소 49.89%를 확보하게 된다. 조현범 회장이 보유한 42.03%를 훌쩍 넘어선다.

◆ 목표 달성 어려울 듯

관계자들은 벤투라가 공개 매수를 성공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국엔컴퍼니 지분 중 특수 관계자 보유 비중이 72.45%, 나머지 지분을 거의 모두 사들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엔컴퍼니의 나머지 지분 27.55% 중 17.25%는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이 보유한 10.37%를 모두 매수한다고 해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지분을 모두 사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매수가도 높지 않아 벤투라에 주식을 팔 이유도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한국엔컴퍼니 주가는 2021년 잠시 2만원을 넘어선 이후 1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공개 매수를 발표한 직후 다시 2

만원을 훌쩍 넘었다. 5일 종가 기준으로 2만1850원이다.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도 적지 않다. 매수를 목표료하는 주식 수가 2000만주 가량, 주당 2만원에 사들인다고 해도 4000억원 가량이 든다.

만약 주식을 팔겠다는 주주가 계획만큼 모이지 않으면 공개 매수 자체를 취소하는 방식이라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분 확대도 불가능하다.

◆ 조현범 흔들기, 왜?

때문에 벤투라가 실제로 한국엔컴퍼니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냐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제기된다.

가장 설득력이 높은 추측은 조현범 회장을 공격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조현범 회장이 ‘사법리스크’로 대내외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 내년 주주총회에서 기관 투자자 등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라는 것. 조현범 회장 지분이 절반을 넘지 않는 만큼 경영권에 흡집을 낼 수는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조현식 고문이 조현범 회장을 공격하면서 실익이 무엇이라는 의문도 남는다. 조현범 회장 지분이 워낙 커서 경영권을 되찾기도 어렵고 조현범 회장 우호지분도 적지 않아 주주들을 돌려세우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현범 회장 측은 우선 사태를 주시하며 내년 주주총회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공개 매수를 진행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최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지만, 지난달 28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한경협, ‘경제현안 대응 임원 협의회’ 출범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요 기업들과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응할 ‘원팀 코리아’를 가동한다. 한경협은 5일 ‘글로벌 경제 현안 대응 임원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표 기업 20여개사가 참여해 분기마다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조직이다. 각사 글로벌 비즈니스 담당 임원과 정부 인사 및 전문가를 초청해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대응을 협의한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제출

서울·전북 1석 감식… 인천·경기 1석 증식

서울, 대구 등 5곳 구역 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확정안에 따르면 서울 1곳, 부산 1곳, 경기 2곳, 전북 1곳, 전남 1곳 등 6개 선거구가 합구되고, 부산 1곳, 인천 1곳, 경기 3곳, 전남 1곳의 선거구가 분구된다. 구역이 조정되는 곳은 서울, 대구, 경기, 강원, 경북 등 5곳이다.

획정위는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해 최소화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결과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식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분구되는 곳은 총 6곳으로 ▲부산 북강서갑·을→부산 북구갑·을, 부산 강서 ▲인천 서구갑·을→인천 서구갑·을·병 ▲경기 평택갑·을→경기 평택 갑·을·병 ▲경기 하남→경기 하남갑·을 ▲경기 화성갑·을·병→경기 화성갑·을·병·정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전남 순천갑·을, 전남 광양곡성구례 등이다.

통합되는 선거구도 6곳으로, ▲서울 노원 갑·을·병→노원갑·을 ▲부산 남구갑·을→부산남구 ▲경기 부천갑·을·병·정→부천갑·을·병 ▲경기 안산상록갑·을, 안산단원갑·을→경기 안산갑·을·병 ▲전북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전북 정읍순창고창부안, 전북 남원진안무주장수, 전북 김제완주임실 ▲전남 목포, 전남 나주화순, 전남 해남완도진도, 전남 영암무안신안→전남 목포신안, 전남 나주화순무안, 전남 해남영암완도진도 등이다.

구역이 조정되는 곳은 총 5곳으로 ▲서울 종로, 중구성동갑·을→서울 종로·중구, 성동갑·을 ▲대구 동구갑·을→대구 동구군위갑·을(군위군 대구 통합) ▲경기 동두천연천, 경기 양주, 경기 포천가평→경기 동두천양주갑·을, 경기 포천연천가평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강원 강릉,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강원 춘천갑·을, 강원 강릉양양,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경북 군위 의성청송영덕→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성청송영덕울진 등이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의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이 1곳씩 늘어나는 셈이다.

/서예진 기자 syj@

‘오너3세’ 신유열, 롯데 핵심사업 보폭 전망



정기인사… 승진 구도 이목집중
일각선 유통군 대표 유임 관측도

6일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롯데그룹의 구조조정이 업계 화두다. 특히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가 유통사업군으로 보폭을 넓힐지 주목하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초로 예상했던 롯데의 인사가 12월 6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상무의 승진 여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는 매년 연말 이사회를 열어 임원 인사와 구조조정 등을 진행했다. 올해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주요 그룹들이 비상경영을 선언하면서 내년도 인사발표를 앞당겼다. 롯데도 예년보다 인사이동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년대로 12월 초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인사에서는 신유열 상무의 위치가 가장 큰 관심사다. 신 상무가 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

통사업 군으로 보폭을 넓힐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5일 부산광역시 강서구국제산업물류도시에서 열린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 착공식에 신동빈 회장과 신 상무가 함께 참석한 게 보직 이동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신 상무는 그룹의 주요 행사를 신 회장과 함께 소화하며 경영수업을 쌓아나가고 있다. 실제 신 상무는 지난 9월 베트남에서 열린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개장식에 신동빈 회장과 함께 동행하면서 올해 롯데 구조조정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했다.

당시 신 회장은 신 상무에 대해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유통을 포함해 국내의 사업 현

장을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공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상무는 지난해 초 상무로 승진했다. 이에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이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신 상무의 승진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해당 배경도 충분하다. 현재 신유열 상무가 담당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의 신사업이 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3분기에 영업이익 28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적자가 751억원이지만 전지소재 사업 등 신사업의 호조로 반등 조짐이 일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유열 상무는 일본과 한국의 화학·소재 사업 등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유통그룹 3사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롯데의 경우 경쟁사 대비 실적이 양호하다는 측면에서 현재 대표들을 유임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GDP 디플레이터, 1년만에 2.8% 상승

》1년 ‘3분기 성장률 0.6%…’서 계속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치인 1.4%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 부장은 “이번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설비투자, 정부소비 등이 개선됐다”며 “전망치 1.4%가 될 가능성이 소폭 높아졌다”고 말했다.

◆소득증가보다 지출증가 빨라

한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481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실질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국민이 외국에서 벌 소득에서 외국인 국내에서 벌 소득을 뺀 실질 국외

순취요소소득은 2분기 10조3000억원에서 3분기 5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무역 손익은 같은 기간 34조원에서 25조원으로 축소됐다.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지출을 뺀 총저축액은 186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6000억원(-1.4%) 줄었다. 고금리·물가상승 등으로 소비지출 증가율은 1.3%는 증가한 반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0.4%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1년 만에 2.8% 상승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것으로,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다.

/나유리 기자 yul115@

롯데쇼핑, 2000억 규모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첫 삽’

부산 풀필먼트 센터서 기공식 열려
4만5000여종 상품, 日 3만건 배송
품질·누락·오배송 등 불편함 개선
부산CFC, 친환경 물류센터로 운영

롯데쇼핑이 온라인 그로서리 사업 강화를 위해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건설에 본격 착수한다.

롯데쇼핑은 5일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서 열린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인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 기공식에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영국의 글로벌 리테일 테크 기업 오카도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지 약 1년만이다. 첫번째 고객 풀필먼트 센터 건립 지역으로 부산을 선정하고 부지 마련, 시설 설계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부산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는 오카도의 통합 솔루션인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OSP)이 적용된 롯데쇼핑의 첫 번째 물류센터다. 연면적 약 4만2000㎡(약 1만2500평) 규모로, 상품 집적 효율성을 높여 기존 온라인 물류센터보다 상품 구색을 2배 가량 많은 4만5000여 종으로 늘렸다. 배송 처리량 역시 약 2배 늘어난 하루 3만여건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비용은 약 2000억 원이다. CFC건립공사가 완료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부산 강서구 미음동 국제산업물류도시에서 열린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인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 기공식에 참석, 참석자들과 기공축하 행사를 갖고 있다. /뉴시스

2025년 말부터 부산과 창원, 김해 등 경남지역 약 230만여 세대의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롯데쇼핑은 내다봤다.

CFC에서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의 물론, 상품 피킹과 패킹, 배송 노선을 고려한 배차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로 이뤄진다. 매일 최대 33번의 배차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지연없이 배송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온라인 장보기 과정에서 겪어왔던 상품 변질, 품질, 누락, 오배송, 지연배송 등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쇼핑 편의성과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바둑판 모양의 격자형 레일 설비인 ‘하이프(hive)’와 피킹 및 패킹을 담당하는 로봇인 ‘봇(bot)’이다. 하이브에는 최대 4만5000개 이상의 품목을 보관할 수 있으며, 1000대 이상의 봇들이 하이브 위를 최대 초속 4m로 이동하며 상품을 피킹 및 패킹한다. 봇은 서버와 초당 10회 통신하며 최적화된 경로로 이동해 고객 주문 후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해준다.

또 국내 소비자의 생활 패턴에 최적화된 서비스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선식품 구매 성향을 비롯해 밀집된 주거, 교통 환경 등 생활 환경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냉장 및 냉동식품 구매

성향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저온 환경의 상품 보관 및 배송 체계를 확대하고, 아파트가 많고 교통 혼잡이 빈번한 문화를 고려해 국내 배송차량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프레임을 별도로 개발하고, 배송박스 구성도 새롭게 설계한다. 더불어 국내 소비자의 높은 온라인 쇼핑 수준에 맞도록 온라인 애플리케이션(APP)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CFC는 친환경 물류센터로 운영된다. 이곳에서 배송되는 상품은 모두 전기차량을 통해 고객에게 배송된다. 아울러 건물 옥상 주차장에 연간 약 2000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조성한다. 이는 부산CFC 전력 사용량의 약

30%에 달하는 전력량이며, 연간 약 1000t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롯데쇼핑은 내다봤다.

이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품 판매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센터 운영과 배송에 필요한 인력으로 2000개 이상의 안정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사회 업체 발굴 및 상품 소싱·판매를 통한 판로 확대와 상생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롯데쇼핑은 부산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을 적용한 CFC를 전국에 6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에 이은 두번째 CFC는 수도권 지역에 건설해 서울, 경기도 고객들에게도 차별화된 쇼핑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은 “부산CFC는 롯데의 새로운 온라인 그로서리 사업의 초석이 되는 첫번째 핵심 인프라다”면서 “롯데쇼핑은 국내에 건설될 6개의 고객 풀필먼트 센터를 바탕으로 국내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 1번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불공정 관행 잡는다... 금리·수수료 선과제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신설

감독 당국이 불공정한 금융 관행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첫 타자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금

리 산정과 수수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5일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 눈높이에서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

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설치한다.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정금융팀도 설치한다. 자체적인 개선과

제 발굴, 우선 추진과제 선정, 부서간 협의·조정, 성과관리 등 체계적 과제관리 기능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개선 과제로 오른 대상은 금리와 수수료다. 금리, 수수료와 관련해 부당하게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일도 여전한 상황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세상은 바뀌어도
우린 여전히
그사랑이
그립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여전히 그리운 사랑이 있습니다.
서툰 표현에 가려진 묵묵한 아버지의 사랑.
언제나 너를 품을 내어준 어머니의 사랑.
오늘, 가슴을 온기로 채워줄
그 사랑을 만납니다.



전시 일정은 변동 가능하니, 지역별 전시관에 문의 바랍니다.

100만
관람객이 찾은
감동 전시

“오랜만에 잊었던 앨범을 꺼내는 듯했다.” _서희정, 직장인
“생의 출발은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_김용경, 교원
“지난날 아버지께 대한 오해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 _문경아, 주부

진심, 眞心
아버지를 그리워
관람객 20만 돌파
전국 8회 순회 전시
약 170점 전시

창원의창 하나님의 교회
2023. 4. 13. ~ | T. 055-263-1925
새예루살렘 미래성전
2023. 8. 17. ~ | T. 031-703-1925
원주 하나님의 교회
2023. 11. 2. ~ | T. 033-746-3735

우리 어머니

10년 통런, 관람객 88만
전국 73회 순회 전시
언론 500회 보도

대구반야월 하나님의 교회
2023. 3. 3. ~ | T. 053-981-2881
전주호성 하나님의 교회
2023. 4. 20. ~ | T. 063-253-1922
서울관악 하나님의 교회
2023. 8. 24. ~ | T. 02-885-9267

• 주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주관 (주)멜기세덱출판사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watv.org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먼훗날 네 여정은
지금보다 훨씬 즐겁고
더 안전할거야.”

더 즐겁고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기술이 만듭니다

HYUNDAI
MOBIS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판 지연 해결해야” vs “檢 무리한 압수수색 남발 제지”

〈與〉

〈野〉

조 “사법권 독립·공정 재판에 최선 재판 지연·압수수색 문제 알고 있어 세심히 살펴 필요 조치 강구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4일) 경기도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적하면서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되고 있다며 조 후보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결하는 기간이 많이 차이 난다는 취지의 말씀들을 드린다”며 “최강욱 전 무소속 의원은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 받았다. 그런데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3개월만에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1심

이 1년5개월 걸렸다. 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대로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정치권하고 일반인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인은 (법원에서) 한번 심리하고 끝나지 않나”라며 “국민들은 권력에만 사법부가 동조한다는 의심을 갖는다. 정치권에서는 판결이 여와 아와 달리 한다는 의심

을 갖는다. 이것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시절”이라고 부연했다.

조 후보자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재판 지연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걱정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검찰의 반복되는 무리한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남발을 제지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요청이 있어서 어제 경기도청에 검찰(수사관)이 들이닥쳤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을 뒤흔들었다”며 “(압색 영장은) 이제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에 이 대표의 (경기지사직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13년 압색하고 한달 내내 머무르며 압색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김 지사가 선출돼서 자신이 들고온 컴퓨터도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영장을 갖고 들어와서 그 전 자료만 보겠다고 했더니 최근 자료를 봤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압색 영장 남발해서 한번

들어오면 정치인들 정치생명 끝난다. 국민들도 목숨 끊는 사례가 많다”며 “(검찰이) 언론에 다 터트리고 공개하고 홍보하고 난리 굶을 한다. 법원이 제지를 해야 하는데, 법원은 100% 거의 다 발부해준다. 압색 영장 발부 자판기 아니냐는 비판 들어봤나”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며 “제가 대법관 근무 당시에도 압색 관련해서 획기적인 판결을 냈다.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한다든가, 압색 자료 반환을 청구한다든가,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판결을 냈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다면 세심하게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미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청문회를 통과한 바 있는 조 후보자는 무난히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역사에 남는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대법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한동훈·원희룡에 총선 바람몰이 기대

추경호·박민식·이영 등 총선 출마원 “계약을 출마, 정해진 거 없어” 희생 혁신안, 최고위서 결정 어려워

윤석열 정부 1기 장관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에 입성하면서, ‘스타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당내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 장관과 원 장관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를 치르면, 수도권에서도 바람몰이를 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5일 여권에 따르면 전날 개각으로 교체된 원 장관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추경호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3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또 박민식 장관은 경기 분당에 출마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지역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출마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교통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영 장관은 서울 서초를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 장관의 경우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 유불리나 제 울타리만을 고수하는 생각은 나부터 버릴 것”이라며, 당내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원 장관은 이제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에도 여지를 둔 바 있다.

그는 이날 “계양을 출마” 관측에 대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형태를 지금 정해놓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며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출마수범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라면 더 앞장설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현재 당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가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 불출마 또는 협지출마(희생) 혁신안을 두고 대립 중이다.

혁신위는 전날 최고위에서 희생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당 혁신안이 안전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지도부의 대답 여부에 따라 ‘비대위 전환’이나 ‘지도부 총사퇴’ 등을 요구할 기세다.

반면 지도부는 최고위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박정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시간을 달라”며 “최고위원들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완전히 배제되는데 최고위에서 그런 내용을 의결하면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다. 당헌당규 문제도 된다”고 설명했다.

만일 혁신위가 조기에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 지도부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여의도에 복귀하는 장관들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당 일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에선 정치인 출신인 원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맡아 선거의 중심에 서고, 한 장관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년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선거를 지휘해야 하므로 ‘협지 출마’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 장관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협지보다는 강남에 출마하고, 전국 유세를 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 장관은 이날 선대위원장이거나 비대위원장 역할론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건 맞지도 않고,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구체적인 문제는 (장관) 임무를 마치면 치열하게 고민하고 당과 의논하며 한발 한발 걸어나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2000년 30대에 정치에 입문해 민주당과 다섯 번 선거를 치러 저 본 적은 없는데,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대표 선수로 가장 많이 나선 사람으로서 국정을 위한 국민 지지와 세력 연합을 위해 책임을 나뉠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당정, 어획량 급감에 최대 3000만원 지원

오징어 생산업체 지원 민당정협의회 대구 군부대 이전 등 ‘지역 맞춤형’ 행보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워진 어업인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대구 군부대 이전 관련 당정협의회를 여는 등 선거를 앞두고 ‘지역 맞춤형’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체 지원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징어 생산업체의 경영 여건 안정

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기온 변화와 수온 상승, 중국 어선 불법 조업, 해상풍력 난개발 등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려워진 생산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단 오징어 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어선 보험료 납부도 내년 6월까지 유예한다.

/서예진 기자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서비스업 확장”

》1면 ‘尹 “수출 진흥이 곧 민생”서 계속

아울러 “수출 주력 품목을 더욱 다변화하고, 수출이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주력 수출 주력 품목을 키우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R&D(연구개발)를 최대한 지원하고,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등 서비스 분야를 제조업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과 중소, 벤처기업을 미래 수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수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청년 무역 인력을 2027년까지 6000명 이상 양성하고, AI(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유망 스타트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체제를 구축해내겠

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에 강점이 있는 스타트업의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정부가 밀착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 기여도를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스톱 수출, 수출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우리 기업이 나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정신이라면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위기를 돌파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무역의 새 역사를 써 보자”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No.1 Cyber Education
N1CE HYCU



한양의 명품 교육을 온라인으로

No.1 Cyber Education
명문 한양사이버대학교

입학문의

전화 : 02-2290-0082
카카오톡 : 한양사이버대학교 채널

2024년 1학기 학부 신·편입생 모집
2023.12.1 ~ 2024.1.11

· 모집학과 ·

학부명	학과명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제어공학과/자동차IT융합공학과
건축도시건설공학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시스템통신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국방융합기술학과/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컴퓨터공학과/해킹보안학과
에너지신소재공학부	스마트배터리공학과
경영학부	경영정보·A비즈니스학과/글로벌경영학과/마케팅학과/생산물류유통학과/재무·회계·세무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관광항공경영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사회과학부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교육공학과/광고미디어학과/법·공무행정학과/보건행정학과/부동산학과/사회복지학과/아동학과
심리상담학부	군경상담학과/미술치료학과/상담심리학과/청소년상담학과
국제언어문화학부	영어학과/일본어학과/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
디자인학부	건축공간디자인학과/뉴미디어디자인학과/리빙디자인학과/시각디자인학과/예술문화디자인학과

코로나19 엔데믹 2題

여행자보험 가입 증가세 신계약 매달 1만여건씩 ↑

해외여행 수요 몰리자 보험 가입자 증가
카카오페이슨보 5개월만에 30만명 가입
롯데손보, 6개 언어 지원 등 편리함 충족

여행자보험의 수요와 가입이 증가 추세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해외 여행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코로나19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 7~8월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지난 7월 해외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12만8649건(단 체보험 제외)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9만1933건, 5월 10만5150건, 6월 11만5961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카카오페이슨해보험의 해외여행자보험 성장세가 가파르다. 최근 11월 3주차 카카오페이슨해보험의 해외여행자보험의 가입 피보험자는 30만명을 넘었다. 출시 6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30만명을 넘어 업계 2위권의 성적을 기록했다. 카카오페이슨해보험은 해외여행자보험 성장세 요인으로 여행 수요 급증에 대비한 보험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꼽았다.

카카오페이슨해보험 관계자는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안전귀국환급금도 지급하고 있다”며 “가입 시 보장 받고 싶은 것만 선택가능한 데다가 가격 조절도 가능해 편의성 측면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여행자보험도 인기를 얻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4월부터 외국인 전용 플랫폼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판매 중인 ‘렛 디스커버(let:discover) 국내여행보험 III’는 월 평균 100% 이상 성장세를 기록했다.

출시 이후 꾸준한 판매량을 올려 판매건수

기준 102%, 판매금액으로는 월 평균 성장률 100% 이상으로 집계됐다. 6개월 동안 가입한 고객의 국적은 총 83개국으로 전 세계 국가의 약 40%에 해당한다.

롯데손해보험은 “여행보험의 성공 비결은 편리함이다.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6개 언어를 지원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 역시 간편하다”며 “외국인 여행보험 서비스 제후를 통해 국내를 넘어 해외 고객의 수요까지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여행자보험 판매 실적이 급증한 원인으로 코로나 엔데믹 전환 이후 해외 여행 수요가 몰린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상황 종식과 여행보험 시장의 변화’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보험 가입은 77만6542건으로 2021년(14만4995건) 대비 435.6% 증가해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지난달 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카드사 여행객 겨냥 마케팅 스마트컨슈머 확보 분수령

8개 카드사 3분기 해외승인액 5.3조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 인기
점유율 대비 해외사용금액 비중 최고

3분기 신용카드사의 해외승인금액이 모두 공개된 가운데 해외 여행객을 겨냥한 마케팅이 활발하다. 명절연휴, 휴가철 등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시장점유율 대비 승인금액이 늘어난 카드사는 ‘스마트컨슈머’ 공략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직불카드와 해외직구 등을 제외한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NH농협카드)의 3분기 해외승인금액은 5조311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결제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신한카드로 승인금액은 1조253억이다. 전체 카드사 중 유일하게 1조원을 넘겼다.

3분기 신한카드의 해외이용금액은 전체 액수의 19.3%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한 신한카드의 개인 신용카드 시장점유율(19.6%)과 비슷하다.

시장점유율 대비 해외 사용 금액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카드였다. 하나카드의 시장점유

율은 5.8%로 업계 하위권이지만 해외승인금액 비중은 전체 액수의 14.54%를 나타냈다. 업계 3위인 현대카드와의 격차는 0.43%포인트(p)다.

하나카드의 성과 배경에는 지난해 7월 출시한 ‘트래블로그’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가입자 200만명을 확보했다. 트래블로그의 해외 체크카드 점유율은 33%로 업계 1위다. 출시 당시 통화 4종류(달러, 엔, 유로, 파운드)만 혜택을 제공했지만 현재 환전 가능한 통화를 26종으로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스마트컨슈머’ 확보에 성공한 사례로 꼽았다. 해외 인출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은 경쟁사에도 존재하지만, 마케팅 확대와 혜택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확보에 성공했다는 것. 스마트컨슈머란 정보 비교를 통해 최적의 선택을 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해외승인금액 증대 배경에는 트래블로그가 자리 잡고 있다”며 “가입자 100만명을 확보하기까지 11개월이 필요했지만 출시 17개월이 지난 현재 가입자 300만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카드에 이어 해외 여행객 확보에 성공한 곳은 우리카드다. 3분기 해외승인금액은 5177억원이다. 전체 승인 금액의 9.74%다. 우리카드는 지난 8월 외화 충전·결제 서비스 플랫폼인 트래블월렛과 협업을 통해 ‘우리카드 트래블월렛’을 출시했다. 현금인출, 결제수수료 무료 등 혜택에 소비자들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의 해외여행객 확보 경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직불카드의 이용률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은 각각 2.6%, 5.2% 증가했지만, 직불카드의 승인금액은 29.9% 감소했다.

/김정환 기자 kimsan119@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케이뱅크 새 행장에 최우형 前 BNK전무



케이뱅크가 4대 행장 최종 후보자로 최우형 전 BNK금융지주 디지털·정보기술(Digital&IT) 부문장(전무·사진)을 내정했다.

케이뱅크는 이달 말 임시 주주총회 개최하고 최우형 내정자를 4대 케이뱅크 은행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5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최우형 전 BNK금융지주 Digital&IT부문장(전무)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최우형 내정자의 금융과 전략, 재무, IT를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국내 및 글로벌기업에서의 성공적인 경험, 인터넷은행의 성장 전략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최우형 내정자는 “케이뱅크 은행장 최종 후보가 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케이뱅크를 만들겠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강통전세 우려에 강제·임의경매 역대 최고

강제경매 7만건 임의경매 11.6만건
전세 보증사고 늘자 경매도 증가세

최근 전세사기와 강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7만978건으로, 전달(6만9487건) 대비 2.1%(1491건) 증가했다. 지난 1월(6만5861건)보다 7.8%(5117건) 늘었다.

지난 8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는 6만9988건으로 지난 2020년 5월(6만9033건) 이후 처음으로 6만9000건을 넘어섰지만, 9월에 7만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10월에 6만9387건을 기록하며 소폭 줄었지만, 11월에 다시 7만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개



서울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매, 전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11만6638건으로, 1개월 만에 3.9%(4356건) 증가했다. 지난 1월(8만3612건)과 비교하면 39.5%(3만3026건) 늘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지난 8월(10만7534건)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한 이후 계속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사기와 강통전세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강제·임의경매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환 기자 kdh@

뱅크앱 QR코드 입력 ATM기 입출금 가능

한은, 오늘부터 서비스 개시

앞으로 은행 ATM기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스캔하면 입출금이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은 오는 6일부터 ‘QR코드를 이용한 ATM 입출금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QR코드를 이용한 ATM 입출금 서비스는 체크카드를 소지할 필요없이 모바일현금카드앱이나 모바일뱅크앱으로 QR코드를 입력하면 현금입출금이 가능하다. 우선 모바일 현금카드앱은 다운받은 뒤 은행계좌와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은행은 SC제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대구·부산·제주·전북·경남·광주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13곳이다.

모바일 뱅킹앱은 서비스를 신청한 뒤 이용가능하다.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SC제일·국민·수협·산업은행과 수협중앙회 등 5곳이다. 단 모바일뱅크는 해당 은행이 운영하는 ATM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현대차·기아, 500억弗 ‘수출의 탑’… 무역수지 흑자 이끌어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현대차 300억弗, 기아 200억弗
조세·고용 등 경제 중추적 역할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수출의 탑’을 각각 수상했다.

현대차·기아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현대차가 300억불 ‘수출의 탑’, 기아가 2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올해 ‘수출의 탑’ 수상 1700여 기업 중 나란히 수출액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현대차 장재훈 사장, 기아 송호성 사장이 ‘수출의 탑’을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현대차가 200억불 ‘수출의 탑’, 기아가 15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현대차의 해당기간(2022년 7월1일~2023년 6월30일) 수출 실적은 31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39억달러) 대비 29.6%, 기아는 235억 달러로 전년 동기(180억 달러) 대비 30.7% 각각 증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원형사진) 송호성 기아 사장.

가했다.

현대차·기아는 지정학적 위기, 보호무역 심화,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난, 경기 침체에 따른 시장 내 경쟁 심화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현대차·기아의 수출 약진은 고부가가치 차종 비중 확대와 경쟁력 있는 전기차 모델 출시, 글로벌 판매 확대 등이 수익으로 이어진 덕분이다.

또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적용 모델이 전 세계 시장에서 호평 받

며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두 회사 전기차 수출은 2020년 11만9569대에서 지난해 21만8241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대차·기아는 전동화 전환에 따른 전기차 수요 대응을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울산공장 내 연산 20만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착수했고, 기아는 지난 4월 오토랜드 화설레 연산 15만대 규모의 소비자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을 착공했다. 오

토랜드 광명은 일부 생산 라인을 전기차용으로 바꿨다. 현대차·기아는 2030년까지 총 31종의 전기차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판매 확대 및 시장다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통한 신규 해외 거점 진출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상품 라인업 강화, 고객 경험 확대 등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현대차는 환경에 민감한 유럽 시장에서 아이오닉 5 등을 앞세워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직전년도 대비 9.7% 성장했다.

미국시장에서는 특히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판매 증가가 눈에 띄었다. 제네시스는 미국에서 2년 연속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하는 등 주요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글로벌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의 무역수지 기여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1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모두 합쳐 48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 293억 달러의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 톱3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을 필두로 자동차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서 생산·조세·부가가치 창출 면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생산 면에서는 전체 제조업의 12.1%, 세수 면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의 10.8%,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전체 제조업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 기여도도 높다. 자동차 산업 고용 인원은 약 33만명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294만명의 11.2%에 달한다. 다양한 전후방 산업에서 약 150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고 있다. 평균임금도 제조업 전체의 약 12%를 상회한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판매믹스 개선과 글로벌 판매 확대 노력 등으로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에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포스코, 영일만 산단에 ‘산소공장’ 세운다

연산 25만t 규모 산소·질소 생산 “국내 산업가스 시장 경쟁력 강화”

포스코가 산소공장을 착공해 연간 25만t의 산소·질소를 생산한다.

포스코는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연산 25만t 규모의 상업용 가스 생산 설비를 착공했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는 약 1000억원을 투자해 5천평 부지에 산소공장을 신설하고 공기 중의 산소와 질소를 분리, 정제하는 공기 분리장치와 액체산소 2천톤을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저장탱크 등을 설치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대형 저장탱크를 먼저 설치하고 2025년 하반기까지 ASU 설비를 준공해 이차전지의 핵심소재

인 양극재, 전구체 생산공정 및 니켈 정제공정에 사용될 고순도 산소와 질소를 공급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양극재 공장을 운영 중인 포스코퓨처엠 등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산업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에 신설되는 ASU와 대형 저장탱크를 통해 연간 양극재는 10만t, 순니켈은 5만t, 전구체는 11만t까지 공급할 전망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국내 산업가스 시장은 해외 및 사모펀드 소유 기업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가 산업가스 공급 확대를 본격화한다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현재 포항·광양 제철소에 산소공장 총 22개를 보유한 포스코는 연간 약 1700만t의 산업용 가스를 생산 중으로 1600만t은 철강 생산 과정에 사용하고 이 외에는 외부로 판매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의 포항 청림사업장과 광양 동호안 인근의 SNNC 등에는 기체 상태의 산소·질소를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가스는 액화시켜 탱크 로리를 이용해 중소 충전소와 가스 판매 업체로 판매 중이다.

포스코는 향후 수요처 인근에 ASU 설비 확대를 지속 모색하고 회귀가스와 제철소 부산물을 활용한 특수가스 상용화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SKT,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5G 전환

300~400Mbps 급 서비스 제공

전국 시내버스 내에서 제공되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기존 LTE 속도에서 5G로 전환돼 평균 4배 빨라진다.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버스공공와이파이 5G 전환 사업의 2,3차 사업을 맡아 전국 16여개 지자체의 시내버스 와이파이 장비 구축을 12월 초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기관과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일 국립고궁박물관 내에서 개통 행사를 갖고, 5G 버스 와이파이 서비스 정식 개통을 선언했다.

이번 5G 전환으로 인해 버스 와이파이 이는 기존 4세대 LTE 백 킬로비트 약 4배 이상 빠른 300~400Mbps 급으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해당 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른쪽 맨앞)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공공와이파이 민생현장 소통’에서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신용식 SK텔레콤 커넥티비티 CO장(부사장)은 “기존 LTE 기반의 버스공공 와이파이서비스를 5G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과 체감 품질 강화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 1등 이동통신사로서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차원의 사업도 적극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청년 60% “채용·기업정보 획득 어려워”

중기중앙회 “세분화 지원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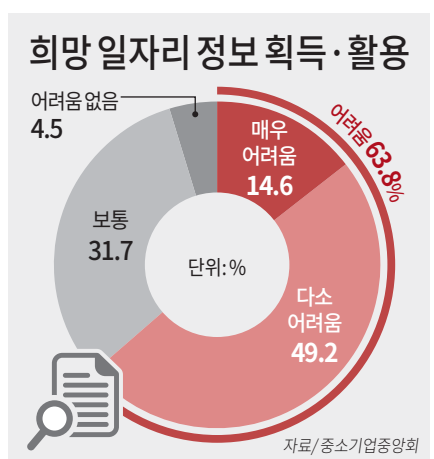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채용·기업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일 내놓은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 63.8%는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 획득이나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전년도 조사에서는 청년 구직자가 구직활동 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기업정보 입수’(29.4%)와 ‘채용정보 획득’(20.6%)을 꼽았다. 올해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63.8%)는 답이 가장 많았다.

여전히 청년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구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정보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자들이 기업과 채용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채용정보 사이트(60.7%)였다. 다음으로 기업 홈페이지(42.7%),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36.5%), 교내 취업지원센터(33.8%)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모든 정보 취득 경로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았다.

대부분의 정보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 위주로 편성돼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향후 학력별 채용정보 취득 경로 개발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구직 지원 프로그램과 일자리 정책의 활용률이 낮은 만큼 학력별·계층별 청년구직자의 현황을 분석해 세분화된 지원정책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현대모비스, ‘의왕 전동화 연구동’ 개소

이규석 사장 “전동화 혁신기지 활용”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전용 연구공간을 만들고 ‘뉴 모비스’ 비전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현대모비스는 5일 경기도 의왕연구소에 ‘전동화 연구동’ 설립 및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동화 연구동은 전동화 부품 개발을 위해 시험과 성능 평가, 품질분석 등을 할 수 있는 곳이다. 2만1600평 규모에 지하4층, 지상 5층 규모로 시험동과 품질분석동 등 부속 건물도 함께 만들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전동화 연구동 설립을 계기로 전문 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우수 인력들을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글로벌 전동화 기술 개발 핵심 연구 센터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 이규석 사장은 이날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전동화 연구동은 최적의 연구 환경을 갖춘 차세대 전동화 기술의 전략 거점”이라며 “전문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핵심 역량을 집중해 전동화 분야 혁신 기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용 기자 juk@

서학개미, 美 증시 강세에 고위험 레버리지 ETF 매수 급증

해외주식 Click

채권가격 상승 노린 美 장기채 선호
마이크로소프트 3680만달러 몰려
“美 증시 숨 고르기 들어갈 수도”

미국 중앙은행(Fed)의 조기 금리 인하와 12월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감에 미 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고위험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고 있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1월 28일~12월 4일) 서학개미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시 3배 수익을 얻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퍼 3배 ETF(SOXS)를 1282만달러 순매수했다. 미국 증시가 급등하자 조정이 올 것으로 보고 반도체 하락에 공격적으로 배팅을 했으나 오히려 반도체 주는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81% 증가했다.

서학개미는 만기 20년 이상 미 국채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미 국채 3배 ETF’(TMF)도 673만달러어치 매입했다. 연준 내 매과 성향 인사로 꼽히던 인사들도 최근 금리 인상 중단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어 고금리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채권 가격 상승을 노린 미 장기채 선호 기조는 이어졌다. 국채 수익률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금리 하락 시기 현재의 높은 이자를 오래 받기 위해 장기채 투자에 나선 것이다.

이밖에도 서학개미는 직전주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를 공격적으로 사들였다. 마이크로소프트에는 3670만 달러가 몰려 2주 연속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상승세를 보인 미 증시에 서학개미들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며 투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

인 12월 산타렐리를 앞두고 증시 강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증시가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평가했으나 일부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미국증시가 최근 강세를 보인 만큼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종만NH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미 국채수익률하락과 양호한 쇼핑 시즌 초기데이터가 주식시장을 지지해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강한 반등을 보인 만큼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지표와 강한 쇼핑 시즌이 이어질지에 대한 관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AI 생태계 선순환구조에서의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과 보수적인 매크로 환경에서도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KB증권, 하반기 IPO 주관실적 ‘쑥’

12건 IPO 주관실적 달성

KB증권이 뒷심을 발휘하며 2023년 하반기 기업공개(IPO) 주관실적이 급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2022년 압도적인 격차로 IPO 주관실적 1위를 기록했던 KB증권은 금년 9월까지 리츠 및 스팩을 제외하고 IPO 주관실적이 없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연이어 IPO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어느덧 연말까지 12건에 달하는 IPO 주관실적 달성을 바라보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주관실적이 급증한 것은 물론이고 해당 IPO 딜 모두 공모가 밴드 상단이상으로 형성됐고, 상장 당일 수익률도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질적으로도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디지털보안기업 ‘한씩’부터 R F필터 파운드리 기업 ‘쏘닉스’, 협동로봇 종합솔루션 기업 ‘두산로보틱스’, 건축용 테크플레이트 제조기업 ‘에스와이스틸테’, 업계 최초의 탄소배출권 기업 ‘에코아이’ 등 다양한 산업군 대상으로 IPO를 성공하며 양적·질적으로 우



KB증권이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 주관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수한 트랙레코드를 달성하고 있다.

한편, 친환경 에너지·소재·부품 기업으로 기대하고 있는 LS머트리얼즈 역시 지난달 28일까지 수요예측을 마치고 공모가 상단을 초과한 6000원으로 발행가격을 확정했다. 현재 이달 1일과 4일, 양일 간 청약율 10배 이상을 대기하고 있다. 또한, 순환경제 전문기업인 DS단석(단석산업)의 경우 바이오 에너지 시장에서 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고 배터리 사업 대규모 시설투자 등의 청사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신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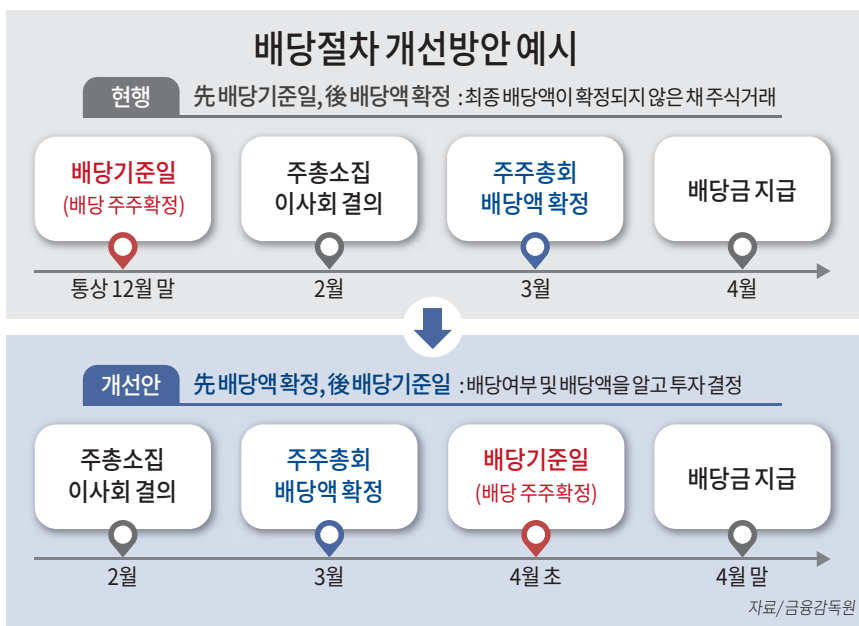
“내년부터 배당액 보고 주식 투자하세요”

금융위·법무부, 배당절차 개선안 발표
배당기준일, 주주총회 이후로 정해

내년부터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4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시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선방안의 이행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정관 준비를 완료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해당 상장 회사들은 ‘선(先)배당액확정, 후(後)배당기준일지정’ 취지에 맞게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해야 한다.



결산배당 시에는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해야 한다. 다만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배당기준일이 분기말로 확정되고 있으나 관련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할 수 있다.

앞으로는 투자자들도 배당 관련 투자의사를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

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 기준 주주로 통일해 왔으나, 올해 말부터는 다수의 기업들이 양자를 달리 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韓투자자, 부동산·사모펀드 관심 높아”

수로더 글로벌 투자자 스터디 조사

국내 투자자들은 당분간 현금을 확보하거나 투자에 나서더라도 사모펀드나 부동산 등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이 공개한 ‘슈로더 글로벌 투자자 스터디 2023’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과 사모펀드·부동산 등 사모 자산에 투자 매력력이 더 높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매력도가 커진 투자 테마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사모 자산(사모펀드·부동산·인프라·사모 부채 및 신용 등) ▲디지털 자산 등을 꼽았다. 특히 사모 자산 분야 중에는 인프라 및 재생에너지(29%), 부동산(25%), 사모펀드

(17%)에 가장 투자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사모 자산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실제 시장 진입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진입 장벽으로는 ▲해당 자산군의 낮은 투명성(73%) ▲자산군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69%)을 꼽았다.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 자산 중 11.7%를 사모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투자에 있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27.8%의 자금을 사모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답해 전문 지식 보유 여부가 투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투자자들도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및 재생에너지 등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투자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안상민 기자 smahn1@

교보증권, 미술품 조각투자 서비스 구축

테사와 공동 마케팅 등 업무협약

교보증권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Tessa)와 토콘증권(STO) 사업 상호협력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교보증권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 김형준 테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블루칩 스테디셀러 작품을 기

반으로 한 전용투자 상품 출시 ▲비대면 계좌개설 프로세스 구축 및 서비스 연동 ▲공동 마케팅 제휴 및 미술품 투자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양사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교보증권은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해 올해 DT전략부를 신설하고 토콘증권(STO), 탄소배출권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한투운용, ACE KRX금현물 ETF, 순자산 10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내 유일 금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인 ACE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액은 지난 1일 1002억원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4일 기준 순자산액은 1021억원이다.

이는 작년 말 427억원에서 139.11%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국내 상장 원자재 ETF의 평균 순자산액 증감률(3.81%)을 압도했다. 2021년 12월 상장한 해당 ETF는 한국거래소가 산출·발표하는 ‘KRX 금현물지수’를 기초지수로 삼는다. 해당 지수는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현물 1kg 가격

수익률에서 보관비용을 차감한 순수익률을 반영해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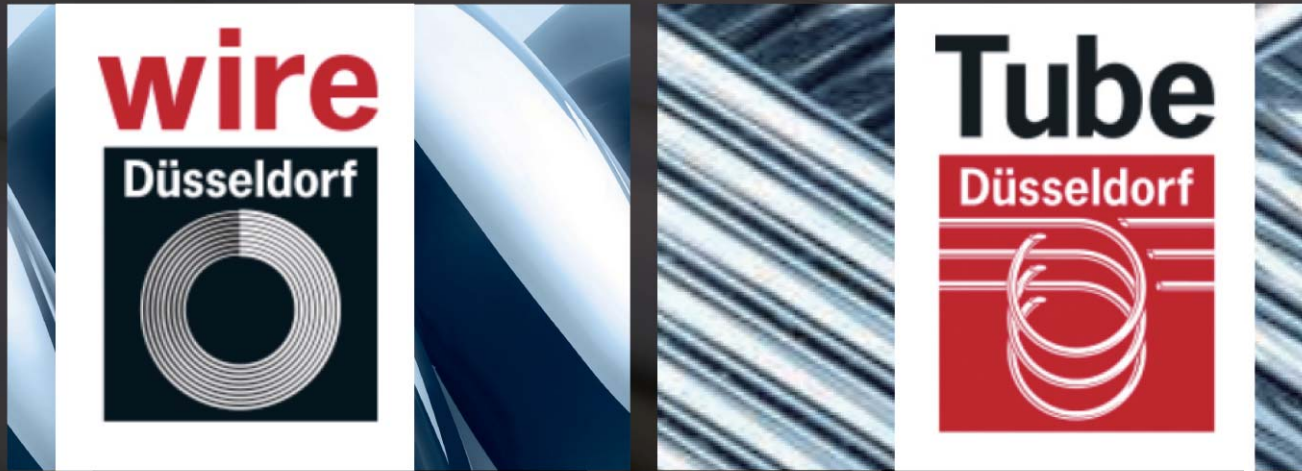
순자산액의 빠른 성장은 개인 투자자의 관심 덕으로 풀이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해당 ETF를 249억원 순매수했다. 이는 전체 원자재 ETF의 개인순매수 평균 금액(2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신하은 기자

독일 뒤셀도르프

Wire & Tube 2024

참관단 모집



| 전시분야 |

와이어, 와이어 생산, 와이어 가공, 케이블, 케이블 생산, 케이블 기술, 기계, 측정 기술, 테스트 기술, 제어계측 기술, 재료 기술, 공구류, 튜브, 튜브 가공기술, 튜즈 제조 기술, 파이프 작업, 용접 기술, 공구류, 기계류, 측정 기술, 제어계측 기술

주요일정

- 4월 14일(일) ▶ 인천국제공항 출발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
- 4월 15일(월) ▶ 독일 Wire&Tube 2024 참관
- 4월 16일(화) ▶ 독일 Wire&Tube 2024 참관
- 4월 17일(수) ▶ 독일 Wire&Tube 2024 참관
- 4월 18일(목) ▶ 독일 Wire&Tube 2024 참관
- 4월 19일(금) ▶ 프랑크푸르트 공항 이동
프랑크푸르트 출발
- 4월 20일(토) ▶ 인천국제공항 도착

* 상기 일정은 현지 업체의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모집 개요 및 참가 대상

- 1. 일 정 : 2024. 04. 14(일) ~ 2024. 04. 20(토) 5박 7일
- 2. 모집인원 : 20명 (선착순 마감)
- 3. 접수기간 : 2023. 11. 06(월) ~ 2023. 12. 22(금)
- 4. 참가대상 : ① 강관·선재·파스너·스프링 제조 및 유통관련 임직원
② 철강 연구소 및 협회·조합관련 인사
③ 화학산업·난방·석유가스·용수 공급등 관련 기업인
④ 향후 관련 업계에 진출하고 자 하는 분

참가비용

3,200,000원 (VAT 별도)

- 왕복 항공권, 호텔, 전시회 입장료
(대한항공 일반석, 뒤셀도르프 시내 호텔 2인1실 기준)

* 항공 및 호텔 변경시 별도 문의

현장서 강한 인재 향해 두드리세요”

2가 지난 12월 1일부터 일제히 2024학년도 1학기 신·
고 졸업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등 고졸 이상 학력을 갖
험(수능) 성적 등과 무관하게 학교별로 자기소개서, 인
입생을 선발한다.
는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하며 인생 2
사이버대 누적 졸업생은 35만명을 넘어섰다.
학과를 개설하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마련해 고등교육의 문을 넓히고 있다. 재학생은 일반
정부 학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신청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수요·트렌드 맞춤 교육



/서울사이버대

필·디지털 시대의 인재
위해 실용영어학과를
영어시험 대비는 물론
OL, 어린이영어지도
어번역 등), 직장인 영
이크로 디그리 발급 등
가능하다.
학과는 현장실무 중심
이터 분석부동산 전문
다. 이밖에도 ▲AI스
생명공학분야는 물론
팜 분야까지 총망라한
육성) ▲인공지능학과
서 가장 촉망받는 인공
성) ▲방위산업·국방경
수준으로 급부상하는
산업 발전 트렌드 반영
출개발) ▲통일안보복
복야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 통일과 안보 문제, 남북관계 및 북한
문제를 연구분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는 전문가 양성) ▲AI크리에이터학과(A
I기술을 미래 미디어에 적용, 콘텐츠 제작
및 구현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등이 마련돼
있다.
서울사이버대는 더 나은 온라인 교육환경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감형 콘텐츠 제작
시스템(VX, Virtual eXperience)을 구축
했다. 이 시스템은 하나의 대상을 다양한 각
도에서 촬영 및 실시간 전송을 통해 학습자
가 여러 각도의 영상 중 하나를 직접 손쉽게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서울사
이버대는 전세계 최초로 이 시스템을 이러닝
서비스에 도입했다.
서울사이버대는 2024년 1월 11일까지 신·
편입생을 모집한다. 총 11개 단과대학, 43개
학과(전공)로 사이버대 최대 모집 학과(전
공)이다.

웰빙건강·한국문화·실용복지 특성화 교육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

특화된 블렌디드 러닝 교육체계 호응
사각지대 없앤 교내 장학 제도 운영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윤철)는 평
생교육 시대에 제2의 진로를 새롭게 설계
할 수 있는 정규 4년제 사이버대학교로 웰
빙건강·한국문화·실용복지 분야의 특성
화 교육을 제공한다. 2002년 개교 이래 4
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약
7천 명의 재적 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최
근 5년간 재학생 재등록률은 평균 90% 이
상이다.

원광디지털대에는 20대부터 70대까
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저마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
다. 그중 직장인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
은 74%에 달할 정도로 직장인 학생이
많다. 타 사이버대에 비해 인생 2막, 제2
의 진로 설계에 특화된 전공이 많아 새
롭게 시작하려는 ‘다시 재학생’의 비중
이 높다.

원광디지털대는 건강약선, 요가명상,
웰니스, 전통공연, 차(茶)문화, 언어치료
등 타 사이버대에 없는 이색 학과가 다양
하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인생 2막을 펼
쳐나갈 수 있는 맞춤형 특성화 학과가 많
은 덕에 입학생 50% 이상은 재학생 또는
동문의 소개를 통해 입학한다.

특히 한방건강약선, 한방미용, 요가명
상, 전통공연, 한국복식 등 타 대학에서



원광디지털대학교 서울캠퍼스 전경. /원광디지털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특화된 블렌디드 러
닝 교육체계는 모든 선택에 신중하고 까
다로운 성인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원광디지털대는 사각지대를 없앤 교내
장학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재학생 10명
중 6명은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이
여간다(2023학년도 1학기 기준 60%). 이
렇게 많은 학생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성적우수자뿐 아니라 1인 가
구, 1인 가장, 주부, 직장인, 만학도 등 다
양한 가구, 연령 등을 반영해 장학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학생을 위한 교육 서
비스 경영을 인정받아 지난 7월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
상했다.

학생의 수요에 부응하는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 없는 장
학 제도를 운영해 학비 부담을 낮춘 환경
을 조성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2024년 원광디지털대는 다시 배우고
싶은 학생,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싶
은 학생을 위해 입학생 전원 수업료
20% 감면 ‘배움장학금’을 지급한다. 그
외에도 주부, 직장인 장학금은 등본, 재
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연속
2회까지 수업료 20%를 감면받을 수 있
다. 만학도 장학금은 따로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수업료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솔로 가장과 1인 가구 등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장학금도 눈길을 끈다. SOLO 가
장 장학금은 솔로 가장으로서 동거인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65세 이상의 부
모)를 부양하는 입학생이 주민등록등본
을 제출하면 수업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장학금은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장학 혜택으로 만 20~30세의 1인
가구 학생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수
업료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원광디지털대는 내년 1월 12일까지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
한다. 모집학과는 총 3개 학부 17개 학
과다.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등 첨단 학과 신설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전문성 기반, 실무 중심 41개 학과 운영
온라인 강의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기정)는 국
내 사이버대학의 선두주자로 20년 넘는 역
사를 자랑한다. 2002년 개교 당시 5개 학
과, 947명으로 시작한 한양사이버대는 눈
부신 성장을 지속해 현재 학부과정 41개
학과(공유전공 포함)에 1만7987명, 석사과
정 6개 대학원 13개 전공에 1197명 등 총 1
만9184명(2023년 대학정보공시 기준)의
국내 최대 규모를 갖춘 사이버대학으로 거
듭나고 있다.

한양사이버대 학사와 석사과정 학생은
총 약 2만명에 다다른다. 연령대는 10대 후
반부터 80대까지 다양하다. 특히 학생 80%
이상이 현직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로서 대
한민국 최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러한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도 학생 중심 UX(사용자 경험), UI(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해, 학생 포탈과 수
강관리시스템(LMS)을 대대적으로 개편
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교육의 단점인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1000명이
동시 접속이 가능하도록 자체 화상세미나
시스템을 갖췄다.

한양대 공개 교육을 온라인으로 옮겨담
은 한양사이버대 공학계열 학과는 전문성
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과로 구성돼 경쟁력



한양사이버대 전경.

/한양사이버대

을 갖췄다. 기계자동차공학부, 건축도시건
설공학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부, 에너지신소재공학부
를 운영하고 있다.

실무 능력을 키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학과도 다양하게 준비
돼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DS)부문과 손잡고 국내 사이버대학으로
는 처음으로 계약학과인 반도체공학과(입
학정원 300명)를 신설, 신입생을 모집해 첫
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과는 삼성전
자 반도체부문 소속 고졸 사원의 직무교육
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과로, 학생들은 일
과 학업을 함께하며 4년 뒤 학사 학위를 받
게 된다. 계약학과 개설과 운영을 통해 학
생들이 업무 이후 원하는 시간에 공학 기
초는 물론, 반도체와 관련된 소자·공정·설
계 등의 최신 기술과 융합 지식을 배우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양사이버대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는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한양사이버대는 2023년 사이버대학 최초
로 한국표준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KS-
SQI(한국서비스품질지수) 평가발표에서
사이버대학 부문 9년 연속 1위에 선정됐
다. 특히, KS-SQI에서 각 영역별로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한양사이버대는 정확
성, 전문성, 진정성, 친절성, 적극성, 이용
편리성, 외형성, 사회적 가치차원에서 타
사이버대학 대비 월등히 앞선 평가점수를
얻었다. 이밖에도 ‘대한민국교육브랜드대
상’에서 17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등 대외
적으로 그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지난 1일부터 2024학년
도 1학기 학부 신입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일반전형을 비롯해 산업체위탁, 군위탁 전
형 모두 모집한다.

산업부, 180개 초격차·산업원천기술 확보에 1.9兆 투입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

국내기업·해외 연구기관 공동연구
국제협력 필수인 기술 대상 추진
R&D 올 5.8% → 15%로 확대 계획

정부가 국제협력 R&D 투자를 확대해 국내 단독으로 개발이 힘든 180가지 초격차 급소기술과 산업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주요 기업 CT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SDI 장혁 부사장, 현대자동차이종수부사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강석철 CTO, CJ바이오 신용욱 CTO 등이 참석했다.

이번 종합전략에 따라 산업부는 2024년부터 국내 단독 개발이 어려운 80개 초격차 기술과 100개 산업원천기술을 국내 기업과 해외 연구기관의 공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동연구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총 180개 기술 확보에 약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80개초격차급소기술은 첨단산업의 벨류체인내 국내 기술력이 취약한 핵심기술로, ‘차세대 인터포저를 활용한 첨단 패키징 기술’, ‘서비스 로봇용 다중감각 지능 모듈’ 등 반도체와 로봇

등 11개 분야 기술이다. 이런 기술을 단기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2024년 1487억원을 투입해 48개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2030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100개 산업원천기술은 ‘차세대 AI 컴퓨팅·반도체’, ‘세포 재생 신약’, ‘이산화탄소 포집력이 향상된 식물’ 등 해

외 원천기술을 토대로 국내 산업의 차세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 확보를 위해 산업부는 MIT(로봇·디스플레이)와 스탠포드(AI·바이오)등 최우수 연구기관에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연구를 추진, 2024년 약 50개 과제 착수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정부 예산안 기준 6870억원을 투자한다.

이번 국제 공동연구는 해외 Peer Review(동료심사), 무기명 전문가 평가 등 다중 검증을 통해 국제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기술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3년 내 국내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해외에서 핵심 원천기술(IP)을 선점한 경우, 국제협력으로 개발기간(1년이상) 및 비용(50%이상) 단축이 가능한 경우,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인증, 실증 및 글로벌 표준확보가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된다. 또 상시 점검 및 연 2회 이상 진도 점검 등을 통해 과제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초실감 공간 컴퓨

팅’이나 ‘개인 맞춤형 바이오 인공지능’ 등 세계적으로 연관산업이 형성되지 않은 초고난도 신기술을 세계 최우수 연구자들과 공동 개발하기 위한 신규 예타사업을 추진해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이번 전략은 그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R&D 성과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협력을 통해 신기술 개발 리스크를 낮추고 최우수 연구기관과 협업해 국내 연구자의 역량을 끌어올리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산업부 R&D 국제협력 규모는 총 3321억원으로 전체 R&D 5조 7000억원의 5.8% 수준에 그친다. 이번 전략에 따라 내년 산업부 국제협력 투자는 5309억원 규모로 올해 대비 60% 증가하고 2028년까지 전체 예산의 1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서 영구제외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
중소로 인정… 자금·세제지원 혜택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해, 기존에는 회사설립일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3여 년 동안 계열연립 유예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던 점, 산학협력법과 현행 시행령 등 관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에 ‘이익배상 사용 제한’, ‘동일인 지배 회사의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 등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오는 21일 시행될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도 앞으로는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

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 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계열연립 유예기간을 단순히 연장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가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계속 받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된 일부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이 개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뉴욕·파리 등 우수 한식당 5곳 소개

농식품부-한식진흥원

꽃·수길·주아·삼부자·맛있다 선정
지정서 수여·식재료 구매 지원 특전

정부가 지정하는 해외 우수 한식당에 미국 뉴욕의 ·꽃(Cote)·수길(Soogil)·주아(Jua) 3곳과 프랑스 파리의 ·삼부자(Sambuza)·맛있다(Ma-shi-ta) 2곳이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5일 뉴욕·파리 등에 소재한 우수 한식당 5곳을 발표했다. 지난 1월에 처음으로 뉴욕의 정식, 윤해운대갈비, 아토믹스, 파리의 순그릴마레, 종로삼계탕, 이도, 일본 도쿄의 윤가, 하수오 등 8곳을 선정 한데 이어 두번째이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한식당들은 완도 전복, 신안 새우젓 등 국산 식재료와 전통식품 명인의 장, 매실청 등을 다양



프랑스 파리의 한식당 ‘삼부자’ 입구. /농식품부

하게 활용하여,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맛의 외교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식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문화 적합성, 국산 식재료 사용, 조리 가격 여부, 위생 등 21개 항목을 중점 심사한다. 지정 한식당에는 지정서 수여와 함께 식재료·식기류 구매 지원 등 특전이 제공된다. /차상근 기자 skc8472@

산업부-EU, 공급망·기술보호 협력 강화

제1차 韓-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탄소중립 이행 세부 협력 논의도

정부가유럽연합(EU)과 공급망 위기 대응과 산업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과 ‘제1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는 지난 5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3년부터 운영해오던 ‘한-EU 산업정책대화’의 논의 범위를 공급망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개최됐다.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위기 대응 매커니즘, 모니터링 등 주요 공급망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화·지능화되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시스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향후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탄소중립 이행, 각국의 첨단산업 유치 전략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분야별 공급망 협력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수소·해상풍력 ▲배터리 ▲반도체 등 세부 산업별 협력 논의도 이어나갔다.

특히 우리 측은 배터리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며 EU 배터리 법안 이행법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인 ‘CF연합’을 소개하고 EU의 지지와 동참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재취업’ 공모전

장애인 콜택시기사, 대상 수상

노사발전재단이 5일 서울 아트리움 호텔에서 ‘2023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재취업에 성공한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재단은 밝혔다.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개인 8명, 기업 6개사에 고용노동부장관상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재단에 따르면 개인부문 대상 김은미 씨는 오랜 경력 단절로 인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인천중장년내일센터에서 체계적인 상담을 받게 되면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발견

하게 됐다. 김 씨는 ‘여성은 운전기사직으로 취업하기 어렵다’라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인천교통공사 소속 장애인 콜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다.

기업부문 대상 삼양식품 원주공장은 강원중장년내일센터의 지원으로 올해 48명의 중장년을 채용해 인력난을 해소했다. 중장년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현장 투입 전 다양한 과업을 경험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와인픽스
분당정자점
GRAND OPEN
2023.11.17

OPEN EVENT
11.17 - 12.07

와인, 위스키, 사케, 맥주, 글라스, 치즈 등 주류와 관련된 2,000여 종의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와인픽스 분당정자점에 초대합니다.



와인픽스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winepick_s

WINE PICKS

※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부산시, 中 시장개척·문화교류 활동 전개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필두
베이징 우호협력 도시 체결 10주년
상하이 자매결연 30주년 계기

부산시는 4일부터 7일까지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현지에서 중국 시장개척 및 문화교류활동 등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부산-베이징 우호협력도시 체결 10주년과 부산-상하이 자매결연 30주년을 계기로 이뤄진다. 부산시는 지난 1993년 8월 중국 상하이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지난 2013년 8월 중국 베이징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교류사업 재개를 위한 베이징·상하이시(市) 부시장 등 고위급 인사 면담 ▲베이징 현지 부산시 투자유치설명회



부산시가 4일~7일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현지에서 중국 시장 개척 및 문화교류 활동을 전개한다. /부산시

개최 및 2023 상하이 조선전시회 부산 지역기업 참가 지원 ▲한중기업가 교류 만찬회 및 기념음악회 등이 있다.

먼저 5일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베이징 현지에서 베이징시 고위급 인사

를 만나 우호협력도시 체결 10주년 계기 양 도시 교류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 자본 및 기업 부산 유치 등을 홍보했다. 이어 베이징 현지에서 중국 기업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부산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국 경제협력 행보를 계속했다.

6일 이 부시장은 상하이로 이동해 현지에서 상하이시 부시장과 면담하며 지난 1993년 체결한 자매도시 체결협정을 발전시킬 경제·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면담 이후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2023 중국 상하이 조선전시회' 행사의 부산관을 방문해 부산지역 참가기업들을 격려하고, 대중국 조선시장 판로 개척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저녁에는 '한중기업가 교류 만찬회 및 기념음악회'에도 참석해 양 도시 조선기자재 분야 기업인들과 교류하며 협력방안

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상하이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합동 연주 공연도 마련돼 양 도시 자매결연 3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하고, 중국 현지에 수준 높은 부산의 교향악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베이징에 이어 7일 상하이에서도 중국 상장사 등 중국기업 70여 개사를 대상으로 부산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는 중국 자본과 기업 유치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우리시는 이번 베이징, 상하이 방문을 계기로 부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국 교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순천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 조계문'에 대한 보물 지정서를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에 전달했다.

순천시

송광사 조계문 '보물' 지정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 조계문(順天 松廣寺 曹溪門)'에 대한 보물 지정서를 소유자(관리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송광사 조계문은 사찰에 들어서는 산문 가운데 첫 번째 문인 일주문으로, 사찰과 공간 구분을 하는 일주문 건축의 보편적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어 문화재청을 통해 역사·학술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전남도 일자리 투자유치국은 지난 1일까지 6일 간 투자유치 사절단을 캐나다 토론토와 윈저로 보내 자동차·철강 제조 분야 잠재 투자기업 발굴 활동을 펼쳤다. /전남도

전남도 사절단, 캐나다 방문해 자동차·철강·에너지 기업 유치

토론토·윈저 소재 기업 방문
전남 기업 북미 진출 방안 논의

전남도가 캐나다의 자동차·철강·에너지 산업 거점 지역인 토론토시와 윈저시를 방문해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일자리 투자유치국은 지난 1일까지 6일 간 투자유치 사절단을 토론토와 윈저로 보내 자동차·철강 제조 분야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추진했다.

사절단은 전남의 역점산업과 연계한 북미시장 투자유치를 위해 전남도와 녹색에너지연구원, 지역 강소기업인 (주)유에너지, (주)티이에프로 구성했다.

먼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소재한 기업을 방문해 북미 에너지 시장의 동향과 제도를 알아보고 향후 상호협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코트라 캐나다 토론토 무역관에선 현지 자동차, 철강 제조 분야 핵심 기업의 전남 유치와 전남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사절단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소재한 기업도 방문했다. 이곳에선 조선·철강·이차전지 산업 기반 시설을 활용한 원자재 수급과 전문인력 확보, 투자 인센티브 등 전남도의 다양한 투자 지원을 소개했다.

/순천(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진도군, 농촌진흥공모사업으로 54억 확보

고체유용미생물 구축사업 등 선정

진도군이 2024년 농촌진흥공모사업에 선정돼 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군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 ▲고체유용미생물 구축사업 30억원 ▲꿀벌자원육성품종사업 24억원 등 총 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농촌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고체유용미생물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고체형 미생물을 대량 생산하는 특허기술을 적용해 자동장비 체계 제작·설치부터 준공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꿀벌자원육성품종 구축사업은 꿀벌 집단폐사와 질병 발생 빈도가 늘면서 흔들리는 농업생태계를 바로잡고 국내 육성 신품종 우수 꿀벌(원여왕벌)을 집중 증식해 보급하는 사업이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시,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착수

전략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토론회
3개 산업육성 방향·9개 전략산업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부산시는 지난 4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제6차(2024~2028) 전략산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난 1999년 전국 최초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까지 5차에 걸쳐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이번 제6차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시는 올해 초부터 국내외 산업기술 동향과 정책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전략산업 육성계획 개편안을 도출했다.

개편안에는 3개의 산업육성 방향

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9개 전략산업이 담겨 있다.

3개의 산업육성 방향은 ▲수도권과 함께 국가성장의 양대 축으로 상품·자본·사람의 집합과 연계·교류 강화(글로벌 도시 인프라 구축) ▲주력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생산성의 제고(주력산업 고도화) ▲도시 인프라 강화와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신산업육성 생태계 조성(미래신산업 육성)이다.

3개 육성 방향에 따른 9대 전략산업은 글로벌 도시 인프라 구축에는 ▲해양산업 ▲금융산업 ▲문화관광산업이다. 주력산업고도화는 ▲미래모빌리티산업 ▲융합부품소재산업 ▲라이프스타일산업이다. 미래신산업육성은 ▲디지털테크산업 ▲에너지테크산업 ▲바이오헬스산업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영덕~포항 철도 중단… 대체 버스 운영

KTX 환승 위해 편도 6회 운행

한국철도공사가 동해선 철도 영덕~포항 구간의 무궁화호 열차를 다음 달 18일부터 약 1년간 운행을 중단기로 한 가운데 영덕군이 대책 마련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영덕~포항 간을 운행 중인 디젤동차(RDC)의 잔존수명평가 결과 안전상 연장 운행이 불가하다는 판단과 함께, 포항~삼척 간 전철화사업 완료 시기가 올해 12월에서 내년 12월로 연기되면서 영덕~포항 간 열차 운행을 올 12월 18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중단기로 하고 그 사실을 지난 10월 5일에 영덕군과 포항시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영덕군은 대책 마련을 위해 김

희국국회의원,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포항시 등과 협의한 결과 철도 연장 운행을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는 대신 중단기간 동안 대체 수송 버스 2대를 영덕역~포항역 간 KTX 열차 시간을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항역에서 KTX와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편도 6회를 운행할 예정이며, 버스의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승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경유지를 조정기로 했다.

또한 철도공단 및 철도공사와 합의를 이끌어 버스 운영비 5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이용 요금을 기존 열차 운임과 같은 2,600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영덕(경북)=김종설 기자 kimjongseol@

장성군

영화 관계자 대상 '팸 투어'

장성군이 최근 영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팸 투어'를 진행했다. 팸 투어는 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는 초청 관광행사다.

이번 팸 투어에는 영화 '더 킬러'를 연출한 최재훈 감독과 '겉기 좋은 날'의 박용주 감독 등 영화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관계자들은 첫날 황룡강, 홍길동테마파크, 장성 필암서원 등 명소를 방문했다. 이튿날에는 천년고찰 백양사를 찾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장성(전남)=양수영 기자

하동군

도시숲·녹지공간 조성 '최우수'

하동군은 2023년 경남도 도시숲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시·군 평가에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그린경남 조성 실적으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군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명품 가로수길 조성 등 녹지공간 확충으로 탄소저감, 생활 환경 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숲 조성사업을 역점 추진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의령군

95세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원

경남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95세를 맞는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5일 군에 따르면, 100세에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20여 군데 있지만, 95세로 연령을 낮춰 지급하는 곳은 의령군이 유일하다.

지난 10월 통계청 자료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를 살펴보면 의령군이 전국에서 8번째, 경남에서 첫 번째로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美·베트남 거점 현지입맛 저격... 오뚜기, 해외사업 ‘고삐’

中·뉴질랜드·베트남·美에 법인
3분기 누적 해외매출 3.2% 줄어
미국 현지에 생산공장 설립 시동

글로벌사업본부장 김경호 영입
글로벌사업부 → 사업본부 격상

그동안 내수 시장에 주력해온 오뚜기가 글로벌 사업에 고삐를 친다.

오뚜기는 카레, 케찹, 라면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국내 식품시장 내 강자의 자리를 지켜왔다. 코로나19 기간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면서 호실적을 거뒀지만, 엔데믹 이후 국내 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저조해지면서 해외사업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라면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접어들면서 외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오뚜기는 현재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 미국 등 4개국에 법인을 세워 운영 중이며 그 중 미국과 베트남을 주요 거점 삼아 해외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뚜기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해외 매출은 2493억원으로 전년 동기



오뚜기 캐릭터 Yellows.

대비 3.2% 줄었다. 같은 기간 국내 매출이 2조37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전체 매출 중 해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다. 3분기 오뚜기 전체 매출 중 해외 시장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4%p 하락한 9.5%에 그쳤다.

반면 경쟁사인 농심과 삼양식품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하다. 농심의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매출의 약 40%, 삼양은 약 70%에 달한다.

농심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03.9% 증가한 557억원이며, 그 중 미국, 중국 등 해외법인의 영업이익이 2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법인의 수출액까지 합산하면 3분기 영업이익의 절반 가량을 해외사업에서 거둔 셈이다. 삼양식품은 3분기 3352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그 중 해외사업 매출은 2000억원 정도다. 경쟁사의 해외 성과와 비교해 오뚜기의 해외 사업 성적은 다소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2005년 ‘오뚜기 아메리카홀딩스’를

설립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오뚜기는 올해 상반기 미국 법인의 매출은 528억원을 기록했다. 오뚜기 해외 전체 매출의 33% 수준이다. 다만 미국 법인은 국내 생산 제품의 수출과 판매만을 담당하고 있어 확대가 급격하게 이뤄지기는 어렵다.

이에 오뚜기는 올해 제조 미국법인인 ‘오뚜기 푸드 아메리카’를 설립하고 미국 현지에 생산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현지 생산 품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라면, 가정간편식(HMR)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에는 베트남에 판매법인을 설립했으며 2018년 베트남 북부 하노이 인근에 제조공장 박닌공장을 준공했다. 베트남 법인은 2017년 매출 273억원에서 지난해 64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했다. 인도네시아 할랄라면 시장 진입을 위해 베트남 라면공장의 할랄 인증과 전용 생산기지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오뚜기는 대표 상품을 중심으로 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을 개발, 차별화한 마케팅을 펼쳐 입지를 다진다는 전략이다.

최근에는 김경호 전 LG전자 부사장

을 글로벌사업본부장(부사장)으로 신규 영입해 눈길을 끌었다. 김 본부장은 20년간 액센츄어 등 컨설팅 업계에 종사했으며, 2009년 LG전자에 입사해 CIO 정보전략팀장(전무), BS유통사업담당(부사장) 등을 거치며 해외 사업에서 전문성을 키웠다. LG전자 재직 당시 프리미엄 제품 비중을 늘리고 체계적인 사업 인프라를 구축해 수익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영입과 함께 기존 글로벌사업부도 글로벌사업본부로 격상했다. 오뚜기내에서 제조본부, 영업본부, 품질보증본부 등 회사 내에서 영향력을 가진 조직들만 ‘본부’로 편제돼 있는만큼 해외 사업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식품업계 경험이 전문한 김 본부장을 영입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시선이 존재하지만 오뚜기 측은 “전문적인 분석과 전략 수립으로 국내의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김 부사장이 오뚜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해외 매출 증대라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감이 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김 부사장 선임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百 “본점서 싱가포르 현지 맛 보세요”

‘저스틴 플레이버 오브 아시아’ 오픈
인테리어·메뉴 등 현지 그대로 구현

롯데백화점이 서울 명동 본점에 싱가포르 스타 셰프 저스틴 켈의 캐주얼 다인 ‘저스틴 플레이버 오브 아시아’ 매장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저스틴 켈은 싱가포르 최초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인 ‘Les Amis(레자미)’의 공동 설립자이자 총괄 셰프였다. 특히 싱가포르 리관유 총리 및 프랑스 대사관 등의 국빈 셰프로 일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번에 문을 여는 레스토랑은 싱가포르 현지의 ‘저스틴 플레이버 오브 아시아’ 매장을 인테리어부터 메뉴까지 싱가포르 현지 그대로

로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본점 지하1층에 약 160㎡(약 50평) 규모로 3일 공식 오픈해 ‘싱가포르인 데이’ 등 내빈 초청 행사를 진행했으며 5일부터 일반 고객들을 맞이한다.

본점의 ‘저스틴 플레이버 오브 아시아’는 싱가포르 문화의 뿌리인 ‘페라나칸’의 전통가옥을 테마로 꾸몄다. 또 스타터부터 사테(꼬치 구이 요리), 누들까지 총 20가지의 프랜차이즈-아시안 퓨전 스타일의 싱가포르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특히 내달 31일까지는 가포르 음료와 꼬치구이 요리를 증명하는 SNS 리뷰 이벤트도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매장내 고지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명동 본점 지하 1층 ‘저스틴 플레이버 오브 아시아’에서 포즈를 취하는 ‘저스틴 켈’ 셰프.

/롯데백화점

롯데홈쇼핑 ‘쫄쫄 돈까스’ 1시간만에 완판

‘먹방유튜버 효과’ 방송 전부터 주문

롯데홈쇼핑은 구독자 900만명의 ‘먹방’ 유튜버 쫄쫄과 함께 개발한 가정간편식 함박스테이크가 론칭 당일인 1일 완판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쫄쫄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원조 쫄쫄돈까스’ 레시피로 만들었다.

쫄쫄은 이날 TV홈쇼핑에 처음 출연해 상품을 소개했다. 방송은 모바일 등 롯데홈쇼핑 판매채널을 비롯 쫄쫄 공식 유튜브에도 동시 송출됐다.

방송 전부터 2000세트 이상 주문이 몰



유튜버 ‘쫄쫄’ 먹방 생방송 모습. /롯데홈쇼핑

렸고 방송 이후 65분 만에 준비 물량 5500세트가 모두 팔렸다. 롯데홈쇼핑은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차별화 상품과 먹방 유튜버의 TV홈쇼핑 출연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최빛나 기자

日 Z세대, 이커머스 첫 구매품 ‘패션·굿즈’

이베이재팬, 인터넷쇼핑 이용 실태
Y세대는 ‘책·만화·잡지’ 처음 구매

일본의 Z세대가 이커머스를 통해 처음 구매하는 물품은 ‘패션’과 ‘굿즈’인 것으로 나타났다. Y세대는 ‘책·만화·잡지’ 등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오픈마켓 ‘큐텐재팬’을 운영하는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이베이재팬은 인터넷쇼핑 경험이 있는 Z세대(15~25세) 남녀 250명과 Y세대(26~40세) 남녀 250명 총 500명을 대상으로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쇼핑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인터넷쇼핑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한 ‘이커머스 쇼핑 시작 나이’를 조

사한 결과 Z세대는 평균 16.47세에, Y세대는 평균 20.36세에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4세의 차이가 있으며, Z세대가 Y세대에 비해 더 빨리 인터넷쇼핑을 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Z세대와 Y세대 합해서 인터넷쇼핑으로 처음 구매한 제품(복수응답) 전체 1위는 패션(19.4%)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 보면 Z세대 1위는 패션이(22%), 2위는 아이돌이나 아티스트의 굿즈(18.4%)가 차지했다. Y세대의 경우 패션은 제치고 책·만화·잡지(17.6%)가 1위에 올랐다.

인터넷쇼핑을 통해 자주 구매하는 제품으로는 전체적으로 패션(39.8%)이 1위를 차지했다.

/신원선 기자

위메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제품 맞춤 홍보영상 제작

위메프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 ‘미디어커머스 진출지원 사업’을 펼친다. 미디어커머스 진출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디지털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제품별 맞춤 홍보영상을 제작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위메프는 동행축제 기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미디어커머스 영상 제작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용 기획전과 마케팅 지원, 할인쿠폰 제공 등 매출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위메프는 12월 한 달간 웹상타고 눈꽃 겨울 쇼핑 기획전을 열고 700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품을 선정해 최대 84% 할인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새우·아귀 등으로 따뜻한 음식 준비

글로벌 푸드케어&케이터링 아워홈은 전국 주요 컨세션 매장에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겨울 시즌 신메뉴 4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아워홈은 올해 계묘년을 맞아 컨세션 매장 콘셉트를 ‘2023 토끼처럼 더 높게 더 멀리 J.U.M.P UP!’으로 선정하고, 계절별로 ▲Joyful(즐거움 한끼) ▲Useful(간편한 한끼) ▲Mild(편안한 한끼) ▲Powerful(활력 담은 한끼) 키워드에 맞는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신메뉴는 ▲남산 새우 왕 돈까스 ▲콩나물 아귀 볶음 짬뽕 ▲평양식 어복탕 ▲겨울 웡심이 대구알탕 총 4종이다. 새우, 아귀, 홍가리비, 배추, 웡심이, 대구 등 겨울 제철 건강 식재료를 활용해 추운 겨울 몸을 데울 수 있는 따뜻한 음식으로 준비했다.

‘남산 새우 왕 돈까스’는 수제 등심 왕 돈까스와 4가지 시즈닝을 올린 통통한 새우, 담백한 크로켓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메뉴다. ‘콩나물 아귀 볶음 짬뽕’은 추운 겨울 혈액순환을 원활히 돕는 아귀를 듬뿍 넣었다. 아귀와 각종 야채, 매콤한 소스를 센 불에 볶아내 불향을 살렸으며, 콩나물과 홍가리비로 마무리해 맛과 멋을 가득 담았다.

‘평양식 어복탕’은 소고기, 배추, 미나리, 대파, 계란 등을 올린 후 진한 소고기 육수를 가득 채워 끓여낸 맑은 탕이다.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맛으로 속 편하게 즐길 수 있다. ‘겨울 웡심이 대구알탕’은 명란, 곤이, 대구, 감자 웡심을 듬뿍 넣어 얼큰하고 시원하게 끓여냈다.

/신원선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크기 줄여도 약물효과는 그대로 목 넘김 편한 제형 리뉴얼 잇따라

종근당 리피로우·텔미트렌 축소
JW중외제약 ‘브레핀에스’ 리뉴얼
동아에스티 ‘스티렌’ 4번 개량거쳐

국내 제약사들이 소비자 중심의 리뉴얼을 통해 제품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11월 ‘리피로우 20mg, 40mg, 80mg’의 제형을 축소한 리뉴얼 제품을 출시했다. ‘리피로우’는 아토르바스타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스타틴 계열 단일제제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다.

이번 ‘리피로우’ 리뉴얼에서 종근당은 20mg과 80mg은 기존 제형 대비 28%, 40mg은 49% 축소에 성공했다. 이로써 환자의 복약순응도뿐만 아니라 약물 효과를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4년 2월에는 ‘리피로우 10mg’의 제형도 축소한다. 무엇보다 모든 용량의 성상을 타원형으로 일원화하고 분할선을 추가할 방침이다.

종근당의 고혈압 치료제 ‘텔미트렌 40mg, 80mg’의 제형 크기도 축소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근당 관계자는 “복약 순응도는 약제 개수, 정제 형태, 복약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약제 크기는 목의 통증과 불편감을 야기해 복약순응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브레핀에스.

/중외제약.

JW중외제약도 최근 액상형 연질캡슐 진통제 ‘브레핀에스’의 리뉴얼 제품을 선보였다.

JW중외제약은 ‘브레핀에스’의 제형 크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가로 14.5mm, 세로 8.9mm에서 가로 13.0mm, 세로 8.1mm로 중량 기준 약 22% 축소했다.

브레핀에스의 주성분은 이부프로펜으로 발열, 요통, 생리통 등 다양한 통증을 빠르게 억제한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청소년을 비롯해 여성과 고령인 소비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은 앞서 지난 10월에는 진통소염제 ‘페인엔젤 프로(성분명 : 텍시부프로펜)’의 제형 크기도 중량 기준 약 28% 축소했다. 기존 가로 19.8mm, 세로 8.6mm였던 페인엔젤 프로의

제형 크기는 현재 가로 14.2mm, 세로 9.0mm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페인엔젤 프로’의 경우는 1일 2회 이상 다회 복용하는 진통소염제 복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제품을 차별화한 것이다.

JW중외제약은 향후 페인엔젤 이부, 페인엔젤 센 등 소염진통제 제품군의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의 천연물 의약품 위염치료제 ‘스티렌’도 지난 2002년 출시된 후 4번의 개량을 거쳤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5년 스티렌의 경질 캡슐을 정제로 변경했다. 지난 2019년에는 스티렌의 제형 길이와 무게를 축소하고 장방향에서 원형으로 개선했다.

특히 동아에스티는 슈가논과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당뇨병 복합 치료제인 ‘슈가메트서방정’에 동아에스티 자체 기술인 ‘LVMG’을 활용했다. 부형제의 양을 최소화해 정제 중량을 감소시킨 것이다. 또 다중 방출 과립 제조 기술로 제형을 설계했다.

이같은 주요 품목의 제형 개선은 견조한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다. 동아에스티에 따르면 스티렌은 지난 21년 동안 약 9064억원의 누적 매출(스티렌 2X정 포함)을 기록했다. 또 슈가논의 올해 3분기 매출은 68억원으로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38.8% 증가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롯데칠성, E.&J. 갈로와 MOU ‘美 공략’

E.&J. 갈로 와인 한국시장 판매 강화
내년부터 처음처럼·새로 등 美 판매

롯데칠성음료가 미국 시장 공략 강화의 일환으로 세계 최대 와이너리인 E.&J. GALLO와 MOU를 체결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전날 잠실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칠성음료 박윤기 대표이사, E.&J. GALLO 빌 로버츠 본사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칠성음료는 E.&J. GALLO의 와인에 대한 한국 시장 내 판매를 강화한다. 또 E.&J. GA



4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칠성음료 박윤기 대표이사(오른쪽), E. & J. GALLO 빌 로버츠 부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LLO는 내년 1월부터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새로’, ‘순하리’의 미

국 로컬 시장 내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017년부터 롯데칠성음료와 한국시장에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E.&J. GALLO는 75개 계열사와 140여 브랜드를 운영하며 전 세계 약 110개국에 와인을 수출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주류 회사로 ‘칼로 로시’, ‘아포틱’, ‘오린 스위트’ 등의 브랜드가 대표적이다.

특히 나파밸리 컬트 와인의 대표자인 ‘오린 스위트’는 전체 물량의 15%가 한국시장에서 소비될 만큼 한국 와인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아모레퍼시픽 ‘퍼즐우드 단독’ 기획전

퍼즐우드 아트 오브제 출시 기념

아모레퍼시픽이 퍼즐우드의 아트 오브제 출시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2024년 1월 28일까지 서울 성수에 위치한 아모레성수에서 ‘퍼즐우드 단독 기획전’을 진행한다

한다고 5일 밝혔다.

퍼즐우드는 이번 기획전을 위해 국

내 유명·신진 공예 작가와 협업해 몽상 식물을 주제로 한 아트 오브제를 제작했다.

퍼즐우드가 선보이는 아트 오브제 ‘몽상 식물 에디션’에는 ‘센트 워’와 ‘세이프 오브 리추얼’이 있다. ‘센트 워’는 천연 소재의 텍스타일 수제 오브제다. 집꾸미기, 장식품, 디퓨저 스틱 등으로 일상에서 활용될 수 있는 소품이다.

/이청하 기자

한국필립모리스 테리아 러셋·티크 출시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 전용 타바코 스틱 신제품 ‘테리아 러셋(TEREA Russet)’과 ‘테리아 티크(TEREA Teak)’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테리아 일반 맛 라인업에 속하는 ‘테리아 러셋’과 ‘테리아 티크’는 정통 담배맛을 구현하는 제품이다. 섬세한 블렌딩을 통해 ‘테리아 러셋’은 깊이 있는 목작함음, ‘테리아 티크’는 균형 잡힌 부드러움을 전달한다.

/신원선 기자

LG생활건강, 온더바디 풋샴푸 4종 선보

웹툰 ‘마루는 강쥐’와 맞손

LG생활건강의 바디케어 브랜드 ‘온더바디’가 발 관리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온더바디가 ‘온더바디×마루는 강쥐 콜라보 에디션’ 4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코튼풋 발을씻자 풋샴푸’에 웹툰 ‘마루는 강쥐’를 접목한 것이다.

웹툰 ‘마루는 강쥐’는 갑자기 5살 아이로 변한 강아지 마루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LG생활건강은 마루의 포

근하면서도 시원한 성격을 풋샴푸 향으로 구현했다.

LG생활건강은 풋샴푸 ‘사르르 비누향’과 ‘아르르 민트향’을 새롭게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발 냄새를 잡는 ‘풋미스트’와 발 각질을 제거하는 ‘풋필링팩’도 있다.

특히 ‘발가글하자 풋미스트’는 발에 뿌리면 발 냄새를 완화해준다. 알래스카 빙하수와 멘톨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양말처럼 신으면 되는 ‘발각질벗자 풋필링팩’은 편백과 병풀 추출물을 함유해 보습과 진정 기능을 갖췄다.

/이청하 기자



패션그룹형지가 지난 30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중국 최대 섬유류수출기업인 디샹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최병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왼쪽부터),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총괄 부회장, 주리화 디샹그룹 회장, 쿵판핑 위해시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패션그룹형지

형지, 中 의류수출기업과 맞손 ‘현지 개척’

디샹그룹과 의류시장 개발 MOU

패션그룹형지(이하 형지)가 중국 최대 섬유류수출기업인 디샹그룹과 손잡고 중국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한다.

형지는 지난 30일 중국 위해시에 본사를 둔 현지 최대 의류수출기업 디샹그룹(Dishang Group)과 의류 시장 공동개발과 생산 협력을 도모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디샹그룹은 텍스타일 수출과 의류 OEM·ODM 비즈니스를 통해 해외 400여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연간 15억 달러 수출을 포함 연매출 3조 4000억원대(2022년 기준)를 올리는 중국의 대표적 섬유패션기업이다.

송도에 본사를 둔 형지는 산둥반도 위해시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디샹그룹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송도

를 글로벌 형지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업무협약에서는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관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실제로 양국의 의류 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의류 시장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의류 OEM 및 ODM 생산 협력과 함께 자본 협력 등을 통해 양국의 섬유패션 산업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기업 및 기관의 교류 활성화 및 마케팅 협력도 이루어질 방침이다.

형지는 이번 디샹그룹과의 업무협약으로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자사계열사인 형지엘리트가 지난 2016년부터 중국 현지 교복시장에 진출해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원선 기자

애경산업, 캡슐세제 ‘프로 트리플샷’ 첫 선

표백·양이온 폴리머 성분 등 첨가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각종 생활 얼룩 제거에 나선다.

애경산업은 고급 세탁세제 브랜드 ‘리큐 제트’가 캡슐 세제 ‘프로 트리플샷’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실내 건조 시 끈끈한 빨래 냄새의 원인은 섬유 속 피지 물질이다. ‘프로 트리플샷’은 ‘10중 액티브 효소’를 포함해 음식물 얼룩부터 피지 얼룩까지 각종 생활 오염을 제거

한다.

아울러 애경산업은 ‘프로 트리플샷’에 얼터네이티브 표백 성분, 양이온 폴리머 성분 등을 첨가해 제품을 차별화했다.

이에 따라 오염의 표면을 탈색하는 산소계 표백제와 달리 ‘프로 트리플샷’은 흰옷은 더 하얗게,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세탁한다.

또 피부 자극 시험도 완료해 온 가족 의류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하 기자



+ 언어를 배우다 문화를 만나다. +

사이버한국외대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 1차 23.12.1(금)~24.1.15(월) 2차 24.1.30(화)~24.2.15(목)

모집학부 |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다문화·심리상담학부 K뷰티학부

입학상담 | 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서울유협동조합, 대리점 자녀 장학금 1억 전달

서울유협동조합은 전국 서울유우 고객센터(대리점)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총 1억여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유우는 기업 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의 취지를 밝히고 자녀 장학금을 통한 적극적인 ESG경영 실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유우



KB증권, '깨비증권 행복똑똑 크리스마스 캠프' 진행

KB증권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사회적 소외 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맞이 '깨비증권 행복똑똑 크리스마스 캠프'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지노장갑 KB증권 커뮤니케이션본부장(왼쪽에서 세번째), 최두희 브랜드전략부 부사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태광그룹, '쇼핑엔티 파트너스 데이' 개최

태광그룹이 지난달 29일 '쇼핑엔티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동반 성장과 상생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임직원과 25개 협력사 대표 및 임원이 참석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불공정거래 감시위원회 ▲윤리위원회 ▲신문고제도 ▲ESG 위원회 중점 추진 과제 등을 공유했다.

/태광그룹



코웨이 물빛소리합창단, 전국장애인합창대회 금상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이 '2023 전국장애인합창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은 경연곡으로 '담쟁이'를 선보여 서서히 높은 벽을 오르는 것처럼 함께 손을 잡고 도전하면 어떠한 장벽도 넘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노래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코웨이

중기부

눈꽃 동행축제 '1초전도' 챌린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행사인 '2023 눈꽃 동행축제' 홍보를 위해 대국민 SNS 챌린지인 '1초전도 챌린지'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초전도체'를 응용한 '1초전도 챌린지'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기원하며 '국민 누구나 비상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기획됐다.

이번 챌린지는 가수 테이, 이금희 아나운서 등이 동참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현대차그룹, 이동권 증진 '앞장'... 누적 79억 기부

2011년부터 모빌리티 지원 사업
올해 카니발 등 12억 규모 전달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동 약자에 모빌리티를 지원하며 이동권을 제고했다.

현대차그룹은 5일 경기도 용인기아 비전스퀘어에서 '이동약자 모빌리티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대차그룹이 이동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차량과 자전거, 전동 스쿠터와 근력 보조기 등 다양한 모빌리티 기기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2011년 처음 시작해 누적 79억원 규모를 기부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레이 복지차량 24대와 카니발 복지차량 6대, 전동보장구 105대 등 12억원 규모를 내놨다. 특히 레이와 카니발은 현대차그룹이 육성한 사회적 기업 이지무브에서 개발해 의미를 더했다.

현대차그룹은 한국장애인복지시



(왼쪽부터) 현대차그룹 한용빈 부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석왕 회장, 이지무브 김익훈 대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진완 회장(아래),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박경순 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이 복지차량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설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에 모빌리티를 나눴다. 각 기관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복지차량과 전동보장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레이 복지차량 및 카니발 복지차

량은 전국 중증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 지원 및 요양 서비스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며, 전동보장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경증 장애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 지원 활동이 이동약

자들의 더 나은 이동,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동약자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제60회 무역의날 행사

LG이노텍, 수출 기여 기업 입지 공고히

100억불 수출의 탑 수상

LG이노텍이 100억불 성과를 축하받았다.

LG이노텍은 5일 제60회 무역의날 행사에서 100억불 수출의탑을 받았다. 문혁수 CEO가 윤석열 대통령에 직접 받으며 의미를 더했다.

LG이노텍은 2014년 50억불 수출의탑을 수상한지 9년만에 2배인 100억불 수출의탑을 받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수출액이 18조 6000억원, 2020년(8조800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95%를 넘어서며 수출 기여 기업으로 자리를 공고히했다.

LG이노텍은 1970년 설립돼 광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에게 1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학술부선과 기관 소재, 전장 부품 등을 개발해왔다. 2011년 이후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는 전세계 점유율 1위, RF-SiP 등 고부가 통신용 반도체 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LG이노텍은 미래 산업 패러다임 및 사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차별화 기술 및 생산역량을 꾸준히 키워온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앞당긴 언택트 시대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아울러 LG이노텍은 혁신 기술 개발뿐 만 아니라, 제품 공정 및 생산 과정의 디지털 전환(DX), ESG경영 등에서도 글로벌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문혁수 CEO는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 기술과 생산 경쟁력으로 임직원들과 함께 국가 수출 증대에 지속 기여하는 LG이노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LS일렉트릭, 수출탑 '쭉쭉'... 전력 송배전 등 성과

북미 등 글로벌 수주 호황

LS일렉트릭(회장 구자균·사진)이 7억불 수출탑을 올렸다.

LS일렉트릭은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행사에서 '7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매출 7억 6706만달러를 달성한 바 있다. 전년 동기보다 69%나 늘어난 수치로, 2013년 5억불 수출탑을 수상한 이후 10년만에 7억불 수출탑도 달성했다.

LS일렉트릭은 동남아 등 주력 시장 성장에 북미 전력 송배전 설



루선 수주 확대 등 성과라고 설명했다. 기존 주력 시장인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지역

에서 펼친 현지 고객 맞춤형 전략과 더불어 북미, 중동 등 거대 신시장 개척 및 육성 노력의 결과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 '납기 대응력'에서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IRA 이후 글로벌 기업 투자가 활발해진 북미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이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주잔고도 약 2조3000억원에

달한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과 전기차 공장, 현대차와 SK온 합작 배터리 공장 등에서 전력 기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북미, 동남아, 중동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함께 스마트 전력 기술을 앞세운 신시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확대에 전사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10억불 수출탑'을 수상하고 국가 대표 스마트에너지 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한국엔컴퍼니그룹

이수일 사장, 부회장 승진

27명 정기인사 발표

한국엔컴퍼니그룹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 전문가들을 발탁 승진 조치하며 미래 성장 포트폴리오 '스트림' 기반 신성장 동력을 강화한다.

한국엔컴퍼니는 2024년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총 27명으로 한국엔컴퍼니그룹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혁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속 성장 실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인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는 이수일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며 책임을 확대했다. 아울러 김학주 부사장, 김현철 부사장 등 전무 3명과 상무 6명, 상무보 15명이 승진했다.

지주사인 한국엔컴퍼니도 신성장동력 강화와 핵심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성과를 낸 상무 2명과 상무보 1명을 새로 승진시켰다.

/김재웅 기자

인사

◆**삼성화재** ◇부사장 △김일평 ◇상무 △권영집 △김상현 △김현중 △양덕현 △이윤재 △장명조 △조은영

◆**에스원** ◇부사장 △진길수 ◇상무 △박태훈 △안재민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김창모 △김태진 △민병석 ◇상무 △조성제 △허준

◆**제일기획** ◇부사장 승진 △서지영 △정의선 ◇상무 승진 △박준석 △원정림

부음

▲원복희씨 별세, 노영민(전 대통령 비서실장)씨 빙모상 = 4일, 포천장례문화원 202호, 발인 7일, 장지 경기 포천 신북면 가족묘지, 031-541-4144



원광디지털대학교



전액장학생 60% · 17개 특성화 학과

장학금도 특성화 교육도
원하면 원디대

원광디지털대학교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기간

1차 모집 2023. 12. 01 (금) ~ 2024. 01. 12 (금)
2차 모집 2024. 01. 24 (수) ~ 2024. 02. 16 (금)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茶)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홈페이지

www.wdu.ac.kr

입학문의

1588-2854

2023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 2년 연속 수상

2020 교육부 평가인증대학 및
재정지원 가능대학 선정

입학생 장학 수혜율 100%

* 2024학년도 입학생 전원 배움장학금 지급

재학생 60% 전액장학생

*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최태원 “한일, EU같은 경제협력 모델로”

미국서 열린 ‘2023 TPD’ 참석
한일 경제 협력체 필요성 강조해
관광업·스타트업도 시너지 효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한일 경제협력체를 구체화했다.

5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2023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에 참석했다.

TPD는 한미일 정부와 경제계, 학계 등이 모여 글로벌 현안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최종현 학술원이 2019년 발족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한일 교류 활성화를 넘어 한미일 3자 협력 방안으로 논의를 확장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며 협력과 공조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최 회장은 최근 도쿄에서 주장했던 “한일 경제 협력체”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일 관계의 새 시대, 그리고 한미일 3자협력’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과 일본이 WTO 체제에서 혜택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사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열린 TPD에서 한일 경제협력체를 설명하고 있다. /SK그룹

지고 있다며,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바뀐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경제적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우려했다.

또 최 회장은 한일 경제 협력체가 추후 EU와 같은 아시아 경제협력 모델로 확대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이 강력한 경제동맹을

맺어 성장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할 수 있다며, EU도 프랑스와 독일의 경제 연합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동북아 전체에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갈라 디너에서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도 언급했다. 한일 양국이 전세계 LNG 30%를 수입하고 있다며, 가격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관광업과 스타트업 플랫폼에서도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일 경제협력체가 미국과 함께 협력하면 30조달러 수준 경제권으로 더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임원 인사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젊은 경영자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때가 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부회장단 용퇴설 등 대대적인 개편 예상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최창원SK디스커버리 부회장을 새로운 수석스추구위원회 의장으로 선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50대보다 적은 20세 이하 인구… 韓 진짜 망했나



김지수 집행

김연세
(정책사회부)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 분포를 나이대별로 계산해 봤다. 만 0~9세에 10~19세 인구를 더한 수가 50~59세보다 적었다. 800만 명 대 866만 명. 세는나이로 한 살부터 스물 살까지가 50대에 비해 66만 명이나 모자란 상황이다.

50대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9%를 차지했다. 우리 국민 6명 중 1명 넘게 50대에 속한다. 반면 10세 미만은 6.5%에 불과했다. 이 사회에 영·유아 수가 국민 15명 중 1명꼴밖에 안 되는 것이다. 10대(9.1%) 역시 열에 하나가 채 못 된다.

20세 미만 인구는 40대(15.5%)와 거의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14.9%)에

견줘도 비슷한 수준이다. 심지어 10세 미만은 70대(7.7%)보다도 비중이 1.2%포인트(p) 작다. 사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경고는 짧게는 수년 전부터, 길게는 십수 년 전부터 솔하게 나왔다. 이제는 ‘한국 완전 망했네요’라는 소리까지 바다 건너편에서 들려올 지경이다.

통계청은 매월 발표한다. 혼인건수 감소, 출생아수 최저, 인구의 자연감소분…언제까지 반복할지 알 수 없다.

수능철만 되면 N수생이 넘쳐난다. 올해 더 그랬다. 하지만 언제까지 지금처럼 넘칠까. 1인가구가 넘쳐나고 살 집이 여전히 부족하다. 지금 한 살배기가 스무살, 서른 살 돼도 부족할까. 시험 치를 사람이 급감하고 빈 아파트가 전국에 널리는 상황. 이것은 아주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다. 행안부·통계청이 매월 갱신하는

인구통계가 신호를 여실히 보내고 있다.

수출이 연달아 줄고, 직장인 실질임금이 줄고, 생산·소비·투자가 동반으로 줄고… 그러나 이런 경제지표는 일시적일 뿐, 금세 또 다시 늘어난다.

그런데 지표가 호전돼도 앞으로는 일할 사람이 없다. AI한테 전부 맡길 수 없는 노릇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탈출구 찾으려는 절실함이 요구된다.

이제 입시철이 지나면 곧바로 선거철이다. 여든 아흔 후보들이 이 같은 인구구조 해법을 담은 공약을 내걸면 좋지 않을까.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다. 노인부양세금 내느라 등골 휘는 세상 만들어 주고 싶 것인가.

사실 결혼 없고 아이 안 갖는 풍조에 어떤 답을 해야할지 막막하다. 그렇다고 계속 방치·포기하면 이 나라는 정말 망할 수도 있다.

/ksy@

오늘의 운세 12월 6일 (음 10월 2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직원을 뺐을 때 인성을 우선시해보자. 48년생 바쁘게 길을 떠나야 하는데 신발 끈이 풀려 지체된다. 60년생 유혹이 많으니 마음을 굳건히. 72년생 지혜는 샘솟지 않아도 근면함을. 84년생 무리한 방법의 재투자는 재난초래.



37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49년생 집들이하는 날. 61년생 준비 없는 동문서주는 이익이 없다. 73년생 내가 좋다고 남들도 좋은 것은 아니다. 85년생 내 코가 석 자인데 남의 사정 돌아볼 여지가 없다.



38년생 돈이 밝은 곳에 있으면 지출만 커진다. 50년생 생산성을 이끌어 이득 발생. 62년생 향상심이 없이 보내는 날은 의미가 없다. 74년생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86년생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도 원망하지 마라.



39년생 종로에서 뽕맛고 한강 강가서 분불이. 51년생 소통의 방법을 알면 날개를 다는 형국. 63년생 주변을 탓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75년생 일할 터전이 있어 의욕 넘침. 87년생 좋지 못한 사람과도 어쩔 수 없이 협력해야.



40년생 내가 가진 재물로 우월성은 자체해라. 52년생 주식 투자는 친구 말보다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64년생 신용을 지키는 것은 사회생활에서의 기본이다. 76년생 추진력이 좋은 장점. 88년생 뒤따른 안개처럼 앞을 못 보겠다.



41년생 높은 A보다는 땅을 앗고 있는 집터에서. 53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65년생 조상께 효도하라. 77년생 대장국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자기 주변부터 살피라. 89년생 오십 보나 백 보나 도망친 것은 마한가지.



42년생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 54년생 밤이 지났으니 곧 밝은 새벽이 온다. 66년생 무리수를 두는 투자는 후회를 낳는다. 78년생 가까운 곳으로 여행하여 재충전하는 것도. 90년생 학문의 발전이 없다면 기술을 최고로 향상해야만.



43년생 기도를 올려보면 힘겨움도 줄어들고 닥쳐올 어려움도 덜게 된다. 55년생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67년생 재물이 융통되어 급한 불은 끄게 된다. 79년생 목소리를 낮추라. 91년생 이혼해도 지붕 위에 지붕을 세우는 것처럼 부질없다.



44년생 개개인 복덕의 차이와 운명이 펼쳐지는 발현의 강도가 어제오늘 다르다. 56년생 밤과 낮 가리지 않고 삶이 풍족. 68년생 책을 보니 지혜가 밝아진다. 80년생 일찍 귀가하도록. 92년생 까마귀는 자라면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



45년생 운세가 흔들리니 재투자는 신중하게. 57년생 실패한 거사는 돌아보지 마라. 69년생 구름만 끼고 비는 오지 않지만, 힘을 내야. 81년생 사촌이 땅을 사니 잡자기 배가 아프다. 93년생 묵묵히 하다 보니 여러 좋은 일이 한꺼번에 온다.



46년생 비가 많이 내리니 경제적 여건이 호전. 58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 70년생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이니 그만큼 환경이 중요. 82년생 넓게 보면 여유가 생기고 방법도 생긴다. 94년생 사랑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47년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무리는 힘들다. 59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71년생 감정절제를 잘해야 일이 성사. 83년생 별자리든 점성술이든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것은 동서고금 확고하다. 95년생 스스로 단행하면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



김상회의四季

이치를 밝히다, 명리

모든 분야에서 정보는 무기다. 국가 간의 경쟁이나 기업의 성공도 정보의 획득과 활용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개인의 삶에서도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에 대한 예측정보를 획득하려 무던히 애를 썼다. 세상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하늘과 바람과 천체들을 관측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유정물(有情物)이든 무정물이든 이러한 우주적 에너지와 상호 영향과 작용을 주고받는 것을 직관하고 통찰한 것이다. 그러한 통찰의 결과는 임금 복희씨의 하도와 주나라 문왕의 낙서를 탄생시켰고 춘추전국시대에는 명실상부한 음양오행론이 출현하게 된다. 그로부터 근 천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송나라 때 와서는 오늘날과 같은 사주가 체계가 갖추어지게 된다. 그 후 명나라 때에는 유백은의 ‘적천수滴天髓’ 심요침이 저술한 ‘자평진전子平眞詮’ 등 가히 명리학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저술들이 출현 된다. 이러한 저술들의 근간은 뭘니 뭘니 해도 음양오행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의 역학 거두이신 자강 이석영선생의 ‘사주첩경四柱捷徑’을 비롯하여 이석영 선생의 제자이며 필자의 스승이신 단원 이병렬선생의 ‘알기 쉬운 실증철학實證哲學’과 같은 특출난 명리학 저서 역시 음양오행론이 기초가 된다.

스승님들은 인간 개인의 운명에서부터 나라의 국운까지 짚어 보는 데는 주역 매화역수 육효점 등 역시 가치가 뛰어나지만, 대중적으로는 사주명리학이 친숙하다. 당나라 때는 당사주라 하여 비교적 단순한 구조와 논리로 인간사 운명의 개략을 점치기도 했다. 송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약 100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명리학이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생명을 존속하고 있는 것은 원리의 과학성으로 예측도가 정확한 까닭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2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2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하철 내 선반설치, 행선지 표기 변경… 시민불편 줄여야”

서울시 ‘상상대로 서울’ 건의 접수
“교체중 신조전동차에 선반설치
이미 운행중 차량, 중장기 검토”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열차 내 선반 설치, 행선지 표기 방식 변경, 신분당선 서북부 대안 노선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는 지하철 2호선 안에 선반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접수됐다.

서울 소재 학교에 등하교하면서 2호선을 자주 이용한다고 밝힌 대학생 이모씨는 “항상 느꼈지만 2호선에는 선반이 달려 있지 않아 짐이 많을 때 지하철을 타기 불편하다”면서 “선반이 없는 열차가 많아 짐을 편히 올려놓지 못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을 많이 봤다”고 밝혔다.

이어 “저 역시 학교 준비물 때문에 들고 가야 할 짐이 많은 경우 앞이나 서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 모습.

/김현정 기자

짐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다”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2호선 열차에 선반을 설치해줄 것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했다.

시는 “선반 미설치 전동차 운영 과정에서 재설치를 요청하는 승객들의 민원이 발생해 현재 교체 중인 신조 전동차에는 1칸당 2개소 기준으로 선반이 설

치되고 있으며, 향후 도입될 차량들도 같은 기준으로 선반이 설치돼 운영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시는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의 개조·개량은 작업 대상 전동차를 열차 시간표에서 제외해 생기는 열차 운전 시격 및 이용객 밀집도 증가 등 불편 발생과 선반 설치 비용 추가 소요 등의 사유

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교통공사에 재직 중인 서모씨는 5호선에서 근무하며 보는 가장 흔한 승객 실수는 열차 방향을 혼동해 타는 것이라며, 분기역인 강동역부터는 하남검단산행과 마천행을 구분하기 쉽게 5-A, 5-B를 병기할 것을 제안했다.

서씨는 “다른 지하철 노선은 승차해 가다가 종착역인 경우 내렸다가 그 역에서 다시 타면 되는 시스템이지만 5호선은 단일 호선으로 강동역에서 마천행과 하남검단산행으로 두 갈래로 나뉘는데 2개의 노선 모두 5호선이고, 보라색으로 동일하게 표시돼 타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외국인들도 알아보기 쉽게 5호선을 두 개로 분류해 5-A호선(하남검단산행), 5-B호선(마천행)으로 표시하면 시가 목표토 세운 관광객 3000만 명 달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민들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지 못하자 ‘상상대로 서울’에 다양한 대안 노선을 제안했다.

청원자들은 3호선, GTX-A 라인과 중복되지 않게 변경하면서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을 관통하도록 해 경제성을 높이는 노선, 서울시 1호 뉴타운을 지나 는 은평뉴타운선 등을 제시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까지를 연결하는 19.38km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했지만, 낮은 경제성으로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됐다.

시 교통정책과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은 금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노선으로 재추진하는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라면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대안을 검토·발굴해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동대문 답십리, 서대문 홍제동에 ‘모아타운’ 경기도, 폐기물처리사업 운영 ‘전국 1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2곳 추가
내일 총 4곳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서울시는 이달 4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2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시는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노후한 다

세대·다가구가 밀집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던 지역”이라며 “또한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된 후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를 신청한 대상지 ▲강동구 천호동 401-1 ▲강동구 둔촌동 622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총 4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시는 전체 모아타운 대상지 81곳 중 관리계획이 완료돼 고시된 지역이 작년 4곳에서 올해 34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생활폐기물 발생량 등 3개 분야 만점

경기도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2023년 폐기물 처리사업 운영실태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사업 운영실태 평가’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자립률,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4개 분야 생활폐기물 처리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총점 92점으로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특히 생활폐기물 발생량,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 3개 분야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경기도는 그간 폐기물 감축, 재활용 우선 정책, 폐기물처리시설 적기확충

등 자원순환분야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경기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9년부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5개 분야 3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의 자원순환분야 정책발굴을 위한 평가를 통해 폐기물 선진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시군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는 정책으로 공유해 활용되고 있다.

2021년 전국 최초로 배달앱 대화용기 사업을 추진해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장례식장과 지역축제, 공공시설로 범위를 넓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사회적약자 범죄예방 총력

서울경찰청과 지키미 보급

서울시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장에서 서울경찰청과 여성, 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안심세트 지키미(ME)’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키미’ 지원과 배부 ▲이상동기 범죄와 같은 위험 상황 예방을 위한 정보 교류 ▲안전한 서울 구축과 관련한 정책 마련 및 공동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안심 물품을 지원한다. 서울경찰청은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를 선정해 물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이어 서울광장에서 ‘휴대용 SOS 비상벨’ 현장 시연회가 열렸다. 시연은 ‘범죄 발생→휴대용 SOS 비상벨 작동→문자전송 및 112신고→경찰 출동’ 순으로 진행됐다.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로 구성된 ‘지키미’는 이달 말부터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서 배부된다. 지원 대상은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이다.

/김현정 기자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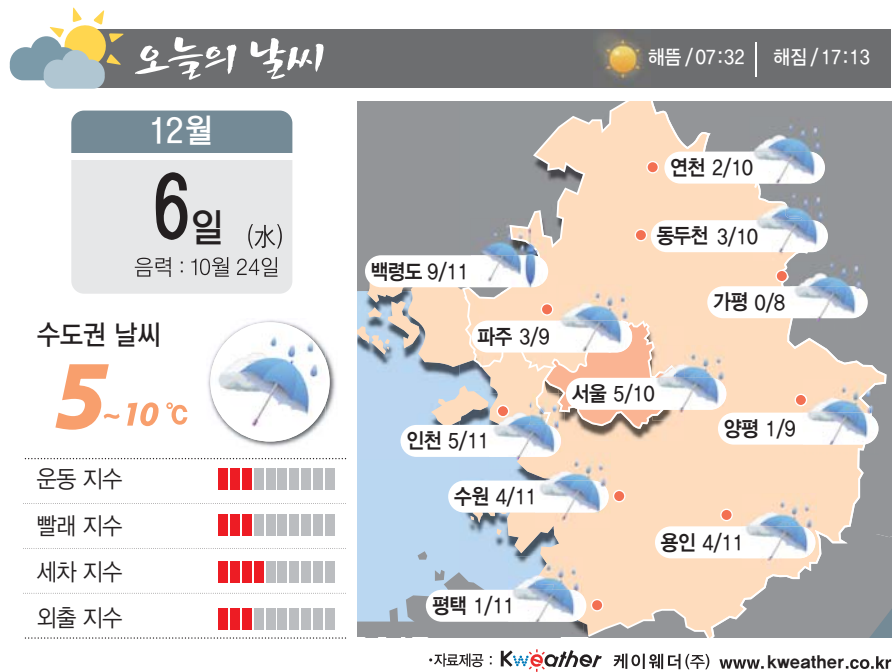
서울시, 20일 서소문1청사서 개최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20일 오후 3~5시 서소문1청사 후생동 4층에서 열린다.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정책 실험 결과가 공유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 및 토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혼잡통행료와 관련된 의견은 이메일(jinee73@seoul.go.kr), 팩스(02-2133-1048), 우편(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7층 교통정책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비트코인 4만 2000달러 돌파...국가 화폐 정한 엘살바도르 ‘흑자’ /사진 뉴시스
▲ 중국·러시아 해커그룹에 영국 원자력발전소 해킹설...정부 부인

▲ 중국 택배 거래량 연 1200억건 넘어서
▲ 미국 락스타게임즈, 인기 게임 GTA 차기작 영상 조기 공개



▲ 영국 대여한 판다 2마리, 특별 전세기 타고 고향 중국으로 /사진 뉴시스
▲ 미국, 홍해 통과 선박 보호 위한 해군 태스크포스 구축



오뚜기
美·베트남 거점
현지 입맛 저격
너

metro®

Life

현대차그룹
이동약자에
모빌리티 지원
L4



“인류의 미래 ‘오가노이드’, 표준화로 글로벌시장 이끌어야”



이세경의
속깊은 人터뷰

안 선 주 성균관대 생명물리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 적을 두고 있는 안선주 생명물리학과 교수(사진)는 국내 몇 안되는 ‘표준화 전문가’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생활치료 센터, 자동차·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자가진단앱 등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안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국제표준화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0년부터 오가노이드 표준화 작업에 뛰어들었다. 오랜 노력의 성과는 올해부터 가시화됐다. 지난 9월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균관대학교의 주도로 학계, 연구계, 기업 전문가들이 모인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OSI)’가 세워졌다. OSI는 간·장·신장·심장·폐·뇌·피부 등 7개 분야에서 장기별 오가노이드 실용화를 위한 품질 평가 항목 등의 표준 지침안과 공통 표준 지침을 2개를 개발한다. 전 세계에 아직 없는 오가노이드 표준화를 가장 먼저 이뤄내는 것이 목표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은 늘 어렵고 고되다. 그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인류를 위한 ‘사명’감을 되새긴다고 했다. 안 교수는 “오가노이드 표준화를 이끌면 우리가 글로벌 오가노이드 산업을 리드할 수 있다”며 “오가노이드는 정말 어렵지만, 가능성이 높은 미래 성장 산업인 동시에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표준화라는게 정확히 뭐냐.

“쉬운 예를 들어보겠다. 4가지 종류의 다이아몬드가 눈 앞에 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가치가 높고, 가격이 높을거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나? 크기, 반짝임, 투명도가 다 비슷해 보여도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과거 다이몬드는 부르는게 값이었다. 1948년 미국의 보석상이자 교육자였던 로버트 시플리가 다이아몬드 품질평가 기준 4Cs(컷, 중량, 투명도, 색깔)을 만들고, 기준을 측정하는 장비도 만들었다. 그리고 세계를 평정했다. 지금도 미국 보석감정원은 다이아몬드 품질(GIA) 감정을 통해 전 세계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오가노이드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제일 우수한 품질의 오가노이드를 판별할 수 있을까. 지금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논문이 발표될 때마다 우리 것이 제일 우수하다고 다들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표준화 선점은 왜 필요한가.

“오가노이드는 관련 국제표준이 등재된 것이 전혀 없는 초기 단계다. 오가노이드는 줄기 세포를 이용해 장기와 조직을 몸 밖에서 3차원으로 배양하는 방식이다. 세포는 물론 인체와 비슷한 환경에서 배양하기 위해 쓰이는 시약과 배지, 분석 장비들이 무수히 많다. 이미 국내외에서 많은 기업들이 오가노이드 제작기법을 제품과 패키지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아직 없다. 이걸 광택이다. 표준화 해놓으면 제품부터 서비스, 프로토콜, 배양기 등 정말 많은 인접 산업들이 함께 커갈 수 있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독성 평가법을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평가법을 OECD 국제공인 시험법에 등재하는 것을 첫 목표로 삼고 있다. “식약처는 우선 간 오가노이드를 통해 간독성 실험을 하는 평가법을 테스트 가이드라인(TG)으로 만들어 OECD 등재 하려고 한다. 식약처가 첫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주방용 세제와 같은 산업용 화학물의 독성 평가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간 오가노이드 칩을 통해 이러한 화학물의 독성을 평가하는 시험법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국제표준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 안 교수는 한국이 표준화를 선도하면 글로벌 오가노이드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오가노이드 표준화를 위해서는 오가노이드, 줄기세포 분야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이 함께 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이 표준화를 선점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

“이탈리아에서는 커피 원두가 나지 않지만, 에스프레소 기계를 처음 만들고 라떼나 카푸치노와 같은 표준제조법을 만들어 세계에 보급했다. 덕분에 이탈리아는 커피 생산국이 아니지만 커피 산업에 막강한 지배력을 갖게 됐다. 팬데믹 때도 전 세계



안선주 성균관대학교 생명물리학과 교수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3 제약 & 바이오 포럼’에 참석해 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2009년부터 국제표준화 시작한 전문가 미래산업인 오가노이드 표준화 뛰어 들어

표준 리드하면 한국 위상 크게 달라질 것 인접산업 성장 등 경제적 잠재력 큰 분야

실험실 고가 장비 국산화 ‘최우선 과제’ 오가노이드 분야 소부장 함께 성장해야

가 한국의 진단키트를 쓰고,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등을 활용해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 운영절차 등이 한국의 팬데믹 대응기법이 새로운 표준이 됐다. 오가노이드도 마찬가지다.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한국은 후발주자이지만, 오가노이드 제작·품질 평가를 위한 표준을 리드한다면 위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표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국제 인증으로 이어진다. 전 세계 모든 오가노이드는 물론 오가노이드 개발을 위한 장비, 시약 등의 모든 제품에 KS마크, CE 인증과 같은 ‘한국이 만든 국제 인증’이 붙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도 잠재력이 큰 분야다.”

-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나.

“표준화로 실익보려면 표준 조건에 충족하는 장비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현재 국내 실험실에서 오가노이드 개발에 사용되는 시약과 장비들은 대부분 수입산이다. 가능하다면 고가의 장비들이 국산화가 되는게 최우선 과제다. 오가노이드 소부장을 키워야 한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오가노이드 실용화를 위한 지침을 만든 후에는 바로 장비나 시약으로 넘어가서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오가노이드 소부장이 같이 커진다면 엄청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안 교수는 2007년 표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9년 국제표준화기구에 들어가면서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 힘이 되는 사람들을 만났고, 무너지던 순간 만

장일치로 표준안이 통과되는 기적을 맛 봤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오가노이드’를 표준화 분야로 선택했다. 전 세계 표준화 전문가들도 꺼리는 고된 길을 자진해서 걷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표준은 내 운명’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 왜 굳이 힘든 길을 택했나.

“오가노이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가 적임자일 수 있다는 얘기도 여러 곳에서 들었다. 오가노이드를 제작하고 나면 다시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현성이 중요한데,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욕심으로 속이는 사례가 발생한다. 해외에서도 누가 들어도 알 만한 유명한 연구실이 비슷한 문제로 무너지는 사례들도 봤다. 오가노이드 표준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연구자들을 돕는 길이다.”

- 오가노이드의 미래는 어떤가.

“앞으로 8~10년 오가노이드로 장기를 교체하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래 우리나라 먹거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오가노이드 개발 단계에서부터 오가노이드 평가까지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긴 과정이다. 피 검사를 받으면 정상 범위라는 것이 있듯이 모든 장기의 오가노이드 품질 평가 역시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 우리에게 선점 가능성은 있다고 보나.

“선점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게 믿고 있다. 물론 전문가들이 더 있어야 하고 오가노이드 소부장이 함께 성장해야 하는 등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제 기회가 왔다. 무조건 잡아야 한다.”

- 표준화 전문가로 앞으로 꿈이 있다면.

“표준화 작업을 계속 해오다보니 이제 어떻게 표준화가 되겠다는 ‘감’ 같은 것이 있다. 어떻게 접근해야겠다는 그림도 그려진다. 오가노이드 표준화는 팬데믹 때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난이도가 높은 만큼 인류 역사에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유인촌 장관, 광고분야 유공자 16명 포상 /사진 뉴시스
▲문화예술위, 3기 지원심의옴부즈만 민간위원 4명 위촉

▲국립중앙박물관, 미국 덴버박물관에 조선 분청사기 전시
▲장애인체육회,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작...패럴림픽 마케팅 본격화



▲지드래곤, 갤럭시코퍼레이션 계약 임박설 /사진 뉴시스
▲마블스튜디오 케빈 파이기 사장, 아이언맨 복귀 없다 밝혀